Life p/16

선글라스 男 스타일·女 색깔

metro®
메트로 2014년 7월 1일 화요일 제3004호 www.metroseoul.co.kr

Entertainment p/20

중견배우 겹치기 출연 눈길

세월호 국조특위 기관 증인들 '진실 선서' 김관진 국방장관, 김영선 전남도 행정 부시장, 이경옥 안전행정부 차관,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백승주 국방부 차관(오른쪽부터) 등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침몰사고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인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SNS 글·사진 "감정 전이 된다"

美 연구논문 69만명 표본 통해 실험적 증거 입증

#.1 지난 5월28일 서울대 교수들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철저한 개혁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그런데 같은 대학의 한 교수가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에 불과하다. 개나 소나 내는 성명서를 자제해 달라"며 동참하지 않았고 이같은 사실이 동료 교수의 페이스북에서 전해졌다.

문제의 소식은 삽시간에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퍼졌고 네티즌들은 "세월호 침몰 참사 자체도 공포스럽지만 저런 자가 서울대 교수라는 사실 자체가 공포다" "타인의 고통조차 공감하지 못하다니 정신병원에 가야할 듯"이라며 공분했다.

#.2 지난 19일 페이스북에는 감동의 눈물이 모여 강이 생겼다.

암에 걸린 10살짜리 개가 죽은 뒤 주인인 6세 꼬마가 했던 말이 SNS를 타고 전 세계에 퍼졌기 때문이다.

부모님과 수의사가 개의 짧은 수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이 어린이는 말했다.

"나는 이유를 알아요. 사람과 마찬가지로 개도 태어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을 알아요. 주인에게 줄 사랑을 다 줬으니까 오래 살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 글을 본 사람들은 "얼마 전 하늘나라에 간 개가 생각난다. 우리 개도 사랑을 가득 주고 갔다고 생각하니 더 이상 슬프지 않다" "6세 어린이가 날 울게 한다"와 같은 포스팅을 하면서 감동했다.

사람의 감정이 온라인으로 전염될 수 있을까.

'그렇다'고 답할 수 있게 하는 연구 논문이 미국 국립과학원회보(PNAS)에 실려 SNS 세상이 술렁이고 있다.

'사회관계망을 통한 대규모 감정 전염의 실험적 증거'라는 제목의 논문이다. 30일 PNAS에 따르면 이 논문은 페이스북 데이터 사이언스 팀의 애덤 크레이머,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주립대의 제이미 길로리, 코넬대 커뮤니케이션학부와 정보과학부의 제프리 핸콕 등 3명이 공동 저자다.

이 논문은 네트워크에서 대규모의 '감정 전이'가 이뤄진다는 실험적 증거를 제시했다. 무엇보다 69만명에 달하는 대규모 표본을 가동해 과학적 타당성 측면에서 객관성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2012년에 1주일간 실시한 이번 실험의 연구 방법은 간단하다. 페이스북 뉴스피드 알고리즘을 조작해 긍정적인 글을 많이 보는 집단과 부정적인 글을 많이 보는 집단으로 나눴다.

그런데 긍정적인 메시지에 더 많이 노출된 사람들은 긍정적인 글을 더 많이 올렸고 부정적 메시지에 노출된 이용자들은 부정적인 글을 더 많이 작성했다.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페이스북에서 표현한 감정이 (얼굴을 마주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SNS에서 대규모로 감정이 전염된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실험은 사용자의 감정을 조작하고 이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했다는 점에서 윤리적 비난을 사고 있다.

포브스, 인디펜던트, 가디언 등 해외 유력 매체들은 "페이스북이 사용자 69만명 몰래 실험을 진행했다. 이는 페이스북이 '내부적인 운영상의 목적을 위해 정보를 사용한다'고 밝힌 이용약관을 악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더 알찬 정보와 주요 기사 및 상세 기사를 온라인 사이트(www.metroseoul.co.kr)에서 확인하세요

수학여행 오늘부터 재개

3~4 학급 소규모 단위 권장

1일부터 시·도교육청별로 재개되는 수학여행은 3~4 학급 단위의 소규모로 진행하는 것이 권장된다.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 시행 방안'을 마련해 30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안전을 전제로 시·도교육감이 1일부터 수학여행 재개 여부를 정하도록 했다. 또 학생들의 개별화된 체험이 가능하도록 수학여행 규모를 3~4학급 이하로 권장하기로 했다.

교원의 학생 인솔·야간 생활지도·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등을 지원하는 안전요원을 업체가 배치하도록 하는 조항을 수학여행 계약서에 명시하게 했다.

중장기적으로 안전요원을 대체할 가칭 '수학여행 안전지도사'란 국가자격을 신설, 2017년부터 학교가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특히 수학여행 계약 시 업체가 전세버스의 안전 정보를 학교에 제출하게 하고, 선박·항공 등의 출발 전 사업자의 안전교육 시행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윤다혜기자 ydh@

딸과의 작별 입맞춤 3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육군 특수전사령부에서 열린 아랍에미리트(UAE) 군사협력단 '아크부대' 8진 파병 환송식에서 한 장병이 딸과 입맞춤하는 모습을 다른 장병이 부러운 듯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원화 강세, 대비책은 있는가

기자 수첩

김 민 지 <경제산업부 기자>

국민의 관심이 온통 세월호 참사에 쏠린 사이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하반기 경제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원·달러 환율의 하락은 원화 가치의 상승을 뜻한다. 환율은 양면성이 있어 원화 가치가 오르면 수출 기업들은 불리하다.

그러나 수입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문제는 환율 하락세가 너무 가파르다는 점이다. 올 들어 환율이 빠르게 하락해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였던 1080원대가 깨지자 1050, 1030원도 차례로 무너졌다. 지난 27일에는 환율이 달러당 1013.4원을 기록해 올 들어 최저치이자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7월31일(1012.1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심리적 지지선'이 차례로 무너지자 환율 1000원선 붕괴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연일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수출 기업들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빠진 상황이다.

환율 하락세가 하반기에 본격화되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에서는 일시적인 내수경제 위축보단 환율 하락의 직격탄이 큰 위기가 될 수 있다. 올해 평균 환율이 1000원이면 경제성장률은 3.3%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 있다.

이런 상황이 될 때까지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외환 당국은 좀 더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야 한다. 환율 변동에 일희일비하는 일을 줄이는 게 급선무다. 무엇보다 수출에 치우친 국내 경제구조를 과감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더불어 내수 활성화와 함께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은 과감한 경기부양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다.

뉴스&뉴스

외통위 '日 고노담화 검증 규탄 결의안' 채택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30일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검증에 대해 "또 다른 역사도발 행위"라며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본질을 부정하려는 것은 자기모순적 행위일 뿐 아니라 동아시아 평화적 공존과 협력을 훼손하는 행위로,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 접촉 승인…오늘 방북

● 통일부는 30일 개성의 고려 왕궁터인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 조사를 위한 남북 학자들 간의 접촉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측 인원 5명은 1일 개성을 방문, 북측 관계자들과 남북 공동 발굴 조사 재개 문제를 협의한다.

북 "아시안게임때 한미군사훈련 중단" 촉구

● 북한이 인천 아시안게임 기간(9월19일~10월4일) 합미합동군사연습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중단할 것을 30일 촉구했다. 또 내달 4일 0시부터 모든 '심리모략행위'를 전면 중단할 것과 남한 정부에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따른 정책적 결단을 내리라고 요구했다.

집단자위권·고노담화 흔들기 등 민감한 시기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

오늘 3국 첫 회동 논란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해석 변경안에 대한 일본 각의 의결이 임박한 가운데 한국과 미국, 일본의 합참의장이 1일(현지시간) 하와이에서 첫 회의를 가질 계획이어서 그 배경 등이 주목된다.

합참 관계자는 30일 "환태평양합동군사훈련(림팩)을 계기로 하와이에서 만나 3국 군사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며 "최윤희 합참의장과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 이와사키 시게루 일본 통합막료장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서 만나는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의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대화를 통해 사실상 매년 열렸지만 3국 합참의장 회의가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의 핵·미사일이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왔을 때 각종 탐지 등 군사적으로 공유해야할 분야, 억제를 위해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3국이 공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고노 담화 검증 결과 발표 등 일본의 '과거사 도발'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 일본의 집단자위권 각의 결정이 임박한 상태에서 일본까지 포함된 3국 군사협력 강화를 위해 합참의장 회의까지 개최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미국은 어떻게든 한미일 3국 간 군사분야 협력의 틀을 강화하려고 이번 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특히 미국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동조하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우리 군은 회담 일정을 내달 초로 못박은 미국에 대해 내달 중순으로 연기할 것을 여러 차례 제의했지만 미국이 고집을 꺾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임명장 받은 한민구 신임 국방장관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자 상시 발굴 인재풀 만들겠다"

박 대통령 인사청문회 개선 요구도…GOP 사고 "송구"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유능한 공직후보자를 상시 발굴해 인재풀을 만들고 이들에 대한 평가와 검증자료를 평소에 미리 관리해 필요한 자리에 꼭 필요한 인재를 찾아쓰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인사수석실을 신설해 인사시스템 전반을 개선해나갈 생각"이라며 "국회도 인재들이 나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어려움이 없는지를 생각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한다"고 정치권에 요청했다.

특히 총리 후보자의 잇단 낙마와 정홍원 총리의 유임과 관련해 "국정공백과 국론분열이 심화되고 혼란이 지속되는 것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어 고심 끝에 정 총리의 유임을 결정했다"며 "높아진 검증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분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강원도 동부전선에서 발생한 GOP(일반전초)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 "참으로 송구스럽다"며 "사고 원인과 책임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무엇보다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민준기자

여권도 '김명수 카드' 포기 수순

이완구 "표절 의혹 사실 드러나면 통과 안돼"

야권의 잇따른 논문 표절 공세 속에 여권이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포기하고, 다른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통과에 집중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30일 김 후보자의 논문 표절 및 연구비 부당 수령 의혹과 관련해 "국민적 눈으로 볼 때 논문 표절이나 연구비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다면 통과를 못 시키는 것"이라며 "청문회를 열어 객관적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만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여야를 떠나 분명하게 입장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김 후보자의 승진심사 논문 중 유일하게 표절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던 '초·중등 교원선발 및 임용에 관한 고찰'도 다른 사람의 논문을 최소 3편 이상 번갈아가면서 베낀 것으로 확인됐다"며 교수 승진논문 4편에서 모두 부정 행위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민준기자

임 병장 "없는 사람처럼 대우했다"

'슬라임' '할배' 등으로 불려

"부대원들이 없는 사람처럼 대우했다."

강원도 고성군 동부전선 GOP(일반전초) 총기난사범인 임(22) 병장이 군 당국에 이렇게 진술했다. 육군 수사당국은 30일 'GOP 총기난사 수사경과 및 방향'과 관련된 브리핑에서 그 동안 임 병장을 두 차례 조사해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는 병영 내에 따돌림이 존재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육군 관계자는 "사고 GOP의 한 소초에서 발견한 '확인조 순찰일지'라는 파일 속에 소초원들이 여러 명의 캐릭터를 그려 놓은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여기에는 절에 다니는 임 병장을 겨냥해 사찰을 표시하는 마크와 임 병장의 실명이 쓰여 있었다"고 전했다. 또 소초에서 '임우도비누스' '슬라임' '할배' 등의 별명으로 불렸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임 병장은 또 실명을 거론하면서 "모 간부가 뒤통수를 쳤다"고도 진술했다.

그러나 군 관계자는 "이는 일방적인 임 병장의 진술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 수사 당국은 일부 병영 부조리가 있는 정황이 담긴 진술을 확보함에 따라 해당 소초원들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김민준기자

외국인 위한 '서울썸머세일'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쇼핑관광축제 '2014 서울썸머세일'이 개막해 오는 31일까지 열린다. 서울썸머세일을 알리는 현수막이 서울 명동에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GOP 사건때도 '119 출동 지연' 논란

軍 착륙장 변경 등 50분 허비

강원도 고성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에서도 세월호 참사 때와 같이 군과 119본부의 연락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응급헬기 출동이 지연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소방방재청 중앙119구조본부는 "사건 당일인 21일 오후 9시 28분 군으로부터 응급헬기 출동 요청을 받았다"며 "15분 만에 출동 준비를 마쳤지만 군이 요청한 착륙장은 군사 목적 헬기만 이착륙할 수 있는 곳이어서 군이 뒤늦게 착륙장을 변경,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중앙119가 변경된 착륙장으로 가기 위해 군의 비행승인을 받고자 했으나 권한이 있는 군 기관과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다. 결국 중앙119는 출동 준비를 마친 지 50여 분이 지난 오후 10시 35분에야 비행승인을 받고 이륙할 수 있었다.

총기난사 사건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26일 군이 발표한 총상에 의한 사망보다 과다출혈에 의한 사망이 의심되는 소견이 나오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사건 당시 군의 응급조치가 지연됐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김민준기자 mjkim@

'소녀상 말뚝테러' 日 정치인 구속영장

법원이 위안부 소녀상 등에 '말뚝테러'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스즈키씨가 장기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또 검찰에 스즈키씨의 지명수배를 의뢰하기로 했다. 공소장 및 소환장은 재송달할 예정이다.

스즈키씨는 2012년 6월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어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일본에 있는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비에도 말뚝테러를 하고 윤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첫 공판부터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그간 재판이 잇따라 연기돼 왔다. /김민준기자

여름 휴가 절반은 "집에서"

전년比 8.0% 감소, 2박3일 20만원 가장 많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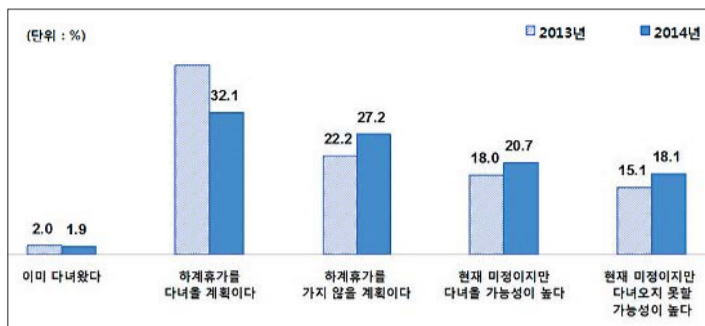
여름휴가 여행계획 여부.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계속된 경제불황과 세월호 참사 등의 여파로 올해 국민들의 여름휴가 계획이 지난해 보다 8%포인트 감소하고 휴가 경비도 줄어들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여름휴가를 계획 중인 사람은 100명 중 55명(54.7%)이며 이중에서도 82.9%는 국내 여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박광무)은 올해 국민들의 여름철 휴가여행 계획을 파악하기 위해 국민 1274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해 30일 이같이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이미 여름휴가를 다녀왔거나(1.9%), 다녀올 가능성이 크다(20.7%), 앞으로 다녀올 계획(32.1%)인 응답자는 54.7%였다. 이는 전년 동일한 조사결과(62.7%)와 비교했을 때 8.0%p 낮은 수치다.

여름휴가 계획의 감소는 휴가문화가 변화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7·8월에 여름휴가가 집중됐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비싼 휴가비용과 교통체증에 따라 '더 일찍, 더 늦게' 가는 분산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다. 실제로 '2013년 국민여행실태조사'의 월별 관광여행 이동총량을 보면 2012년 대비 7·8월의 비중은 줄고 1·3·4·6·9·11월의 이동량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휴가여행 출발 시점은 다음달 29일부터 8월 4일(52.4%)이 가장 많았으며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 여름휴가 여행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됐다.

여행 평균 기간은 3.0일로 2박3일(50.7%)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1박2일(21.7%), 3박4일(16.7%)의 순서이었다.

휴가여행 목적지는 강원도-경상남도-전라남도-경상북도-충청남도 등의 순서로 2013년과 비교했을 때 제주도가 소폭 감소한 반면 경상북도는 증가했다. 제주도의 경우 저비용항공(LCC)이 보편화되면서 성수기와 비수기의 구분이 사라진 4계절 관광지로 자리매김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휴가 기간 중 국내 여행 시 1인당 평균 지출 금액은 20만7000원으로 지난해보다 4000원 상승했다. 올해 여름 휴가비로 전체 국민이 지난해보다 약 800억원 줄어든 3조8520억원을 지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학철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가정학전문가로 새삶 디자인해 볼까

내 적성을 찾아라! 방송통신대 Q&A ④ 가정학과

Q 방송통신대 가정학과는 어떻게 개설되었나.

A 1972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개교와 함께 출발한 가정학과는 개인-가족-지역사회의 맥락에서 일상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교육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등록금은 35만원 내외이며, 다양한 장학금이 있습니다.

Q 가정학과에서 어떤 내용들을 공부하게 되나.

A 1·2학년은 가정학 각 영역의 개론 및 전공기초과목을, 3학년부터는 가정관리학·식품영양학·의상학 전공 중 한 전공을 선택해 아동 및 가족학·가족자원관리 및 소비자학·식품학·영양학·단체급식·의류과학 및 패션마케팅·패션디자인·의복구성에 관련된 전문지식을 배우게 됩니다.

Q 졸업 후 진로는 어떻게 되나.

A 졸업 후에는 전공과 관련된 분야의 자격증 취득 및 취업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가정학과는 일상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문가를 배출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문의 02-3668-4640)

방송통신대 가정학과 '여왕개미' 스터디 회원들이 체육대회에서 함께 나눌 음식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제공

대학특성화사업 108곳 선정

지방 80개·수도권 28개…2017년까지 입학정원 7.3% 감축해야

정원감축과 연계한 정부의 대학특성화 사업에 지방 80개 대학, 수도권 28개 대학 등 총 108개 대학이 선정됐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30일 '대학 특성화 사업(CK)'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선정 결과 지방대학은 80개 대학에서 265개 사업단이, 수도권대학은 28개 대학에서 77개 사업단이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지방대학에는 올해 2031억원, 수도권 대학에는 540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선정된 108개 대학은 입학정원을 2014학년도 대비 2015년에 2.6%, 2016년에 6.0%를 단계적으로 감축해 2017년까지 총 1만8085명(7.3%)을 감축해야 한다. 지방대학의 평균 감축률은 8.7%, 수도권 대학은 3.7%다. 이로써 대학 구조개혁 1주기 목표의 약 75%를 특성화사업으로 줄이게 됐다.

학문 분야별로 보면 주력학과를 기준으로 인문사회 45%, 공학 23%, 자연과학 21%, 예체능 9%의 비중을 보였다.

사업 유형별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특성화 사업을 집중 육성하는 '대학자율' 유형에서 154개 사업단, 인문·사회·자연·예체능 계열 및 국제화 분야를 별도로 지원하는 '국가지원' 유형에서 176개 사업단이 각각 뽑혔다. 지역 연고 산업과 연계한 '지역전략' 유형은 12개 사업단이 선정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도권 대학보다 지방대학의 정원감축 규모가 다소 큰 것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등 각종 대학 평가에서의 불리한 여건과 함께 향후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자발적인 감축 규모를 키웠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윤다혜기자 ydh@metroseoul.co.kr

외국 대학생들의 기대감 30일 오전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고려대학교 국제하계대학(ISC) 입학식에서 외국인 학생들이 사회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스마트폰 삼매경 30일 오후서울 잠실 롯데월드에서 여학생들이 스마트폰 삼매경에 빠져 있다. /연합뉴스

스마트폰 중독 늘어…저연령화 우려

스마트폰에 중독된 학생 수는 줄었지만 더 어린 학생들이 스마트폰에 중독되는 '저연령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교육부와 함께 지난 4~5월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등 학령3전환기 학생 156만여 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습관에 관해 벌인 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학생의 11.9%인 약 18만7000명이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에 속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난해 조사에서 나타난 24만여명보다 약 20%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초등학교 4학년이 1만3183명(2.9%), 중1은 7만605명(13.5%), 고1은 10만2811명(17.4%)이었다.

특히 초등학교 4학년의 경우 지난해의 1만372명에 비해 20% 이상 증가해 중독이 저연령화 되는 양상을 보였다.

인터넷 중독 위험군은 10만5000여명으로 전체의 6.7%였으며 초등학교 4학년이 1만9477명(4.4%), 중1이 4만3187명(8.3%), 고1이 4만2393명(7.2%)으로 집계됐다.

성별로 분석했을 때 남자 청소년은 인터넷, 여자 청소년은 스마트폰 사용에 중독된 경우가 많았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

강서구, 영어캠프 수강 모집

서울 강서구가 14일까지 '여름방학 영어캠프' 수강생을 모집한다.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이며, 수업은 개인별 학습 수준에 따라 3개 반으로 편성해 운영된다. 참가신청은 강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안전의약품 지킴이 운영

서울 중랑구 보건소가 관내 125개소 편의점을 대상으로 '안전상비의약품 시민지킴이'를 운영한다.

시민지킴이는 월 1회 2인 1조로 판매업소를 방문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여부 등을 점검하고 문제업소 발견 시 보건소에 통보한다.

송파구, 무료 창업교육 실시

서울 송파구가 11일까지 송파사회적경제허브센터에서 '무료 창업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달 30일, 2·4·7·9·11일 2주간 총 6회 교육으로 직장인들의 참여를 고려해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다.

헌재 "'관피아 방지' 취업제한 합헌"

헌법재판소가 30일 금융감독원 고위직들이 퇴직 후 2년간 사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공직자윤리법 17조)하고 의무적으로 재산을 등록(공직자윤리법 3조)하도록 정한 공직자윤리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재판관 전원일치로 결정했다.

헌재는 취업제한 조항에 대해 "퇴직 후 특정업체에 취업할 목적으로 해당 업체에 특혜를 주는 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해 금감원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퇴직 전 소속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에 취업하는 것만 제한하고 있고 대상도 4급 이상으로 정한 만큼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산등록을 의무화한 것도 "비리 유혹을 억제하고 업무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봤다.

금감원 4급 직원인 이들은 공직자윤리법 해당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김민준기자 mjkim@

김양 전 부산저축은 부회장 추가기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약정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자금을 빼돌려 다른 업체에 빌려준 혐의로 김양 전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부회장은 2010년 9월 부동산개발업체 B사에 요구해 부산저축은행과 다른 저축은행들로 구성된 대주단이 B사에 대출해주기로 약정돼 있는 PF자금 591억원 중 70억원을 S사에 빌려주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부회장은 PF자금을 대출받기로 대주단과 별도 계약을 체결했던 S사가 대출금을 지급하라고 독촉하자 이같이 B사를 통해 돌려막기 식으로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해 10월 또다른 회사에 10억원을 대여해주도록 재차 요구해 B사에 총 80억원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부회장은 수조 원 대의 불법대출과 분식회계 등의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후 지난해 징역 10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윤다혜기자

전 세계 27개국 220개 도시에서 발행되는 메트로신문은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해외 메트로 주요 기사들을 소개합니다.

metroglobal

metro HongKong

殘疾闖

福建南安市29歲男

寶軍雙手先天殘缺，1

跌倒撞暈令脊椎神經

雙腳失去行走能力。

自強不息，靠用臉頰

腦滑鼠開網店出售對

月賺兩、三千元人民幣

metro France

Santé

Une offensive innovante contre le tabac dans le XIVᵉ. Plus de six ans après l'interdiction de fumer dans les cafés et restaurants, une élue parisienne proposera lundi, au conseil d'arrondissement, d'expérimenter une limitation de la cigarette dans les parcs et jardins. Valérie Maupas, adjointe PS aux Espaces verts du XIVᵉ, souhaite tester une interdiction de fumer dans les aires de jeu pour enfants. « Il ne s'agirait pas d'une mesure cœrcitive mais de bon sens », assure l'élue, qui réfute

prennent que ce n'est pas normal de fumer dans les aires de jeu. »

315 tonnes de mégots par an

L'adjointe de Carine Petit, la maire du XIVᵉ, se dit « portée » par les annonces récentes de la ministre de la Santé, Marisol Touraine, en matière de renforcement de la lutte contre le tabac. L'idée serait de plancher sur une signalétique appropriée et de demander aux agents de sensibiliser les promeneurs. Le vœu, qui a de bonnes chances d'être adopté, pourrait

레스토랑 이어 공원도 '금연구역'

프랑스 파리에서 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발의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까페·레스토랑을 금연구역으로 정한지 6년째인 올해 발레리 모파스 시의원은 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발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라 밝혔다. 모파스 의원은 "강제성은 없지만 흡연율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기획한 법안이다. 공원 모래엔 담배꽁초가 많다. 아이들이 안좋은 환경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을 많은 어른들이 알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metro Peru

Conoce las carreras que más demanda tendrán en el Perú

유망 직업 1위는 환경 공학자

중남미 페루의 직업 시장에서도 이공계가 초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페루 교육부 산하 '국립 청년사무국'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향후 페루에서 가장 유망한 직업의 상위권을 '공학자'가 싹쓸이 했다. 1위는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고 각종 오염 사태를 해결하는 환경공학자가 차지했다. IT 분야의 시스템·정보통신 공학자가 2위에 올랐고, 토목 공학자와 광물 전문가가 그 뒤를 이었다.

"손발 사용 못해도 포기는 없다"

'중국 닉부이치치' 얼굴로 마우스 조작 인터넷 쇼핑몰 운영 감동

'어떤 시련이 와도 받아들이겠다.'

중국 난안(南安)시에 사는 쑤바오쥔(蘇寶軍·29)은 침대에 엎드린 채 힘겹게 마우스를 작동하며 자신의 운명에 대한 도전장을 써내려갔다.

조산아로 태어난 그는 선천적으로 손에 장애가 있어서 아무 것도 쥘 수가 없었다. 19세때 넘어진 후로는 다리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그는 이런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느님. 제가 두 다리를 손처럼 사용하니까 질투가 나서 제 손까지 빼앗아 가셨나요. 그런다고 제가 포기할 것 같습니까'라고 일기를 쓰며 굳은 의지를 다졌다.

쑤바오쥔은 자주 과거를 회상하곤 한다. 두 다리를 이용해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거의 할 수 있었다. 뒤늦게 학교에 들어갔지만 글씨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등산이며 수영, 낚시 등의 활동에도 참여했다.

그의 할머니는 "손자가 어릴 때 두 팔에 장애가 있어 걸음도 휘청거렸지만 발을 이용해 성냥에 불도 붙일 수도 있었다. 바늘귀에 실을 꿰고 멋진 수예 작품 숙제도 완성했다"고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중학교 2학년 때 발을 헛디뎌 시멘트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신을 잃고 다음날 깨어난 그는 몸을 일으킬 수가 없었다. 병원에서는 척추신경이 손상됐다며 2만~3만 위안(약 330만 원 ~490만 원) 정도가 치료비로 든다고 했다. 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 치료를 받을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지낸 지 3년쯤 지나자 문득 그는 고통스러워도 즐거워도 여차피 시간은 똑같이 가는데 즐거운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입에 젓가락을 물고 컴퓨터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목과 입이 아파서 얼마 쓸 수 없었다. 그래서 얼굴로 마우스를 조작하기 시작했다. 이후 인터넷을 통해 많은 친구들을 알게 됐고 위로도 받았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팔과 다리 없이도 행복하게 살고 있는 닉부이치치에 대한 기사를 본 그는 더욱 긍정적으로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친구의 제안으로 3년 전에는 무전기를 파는 인터넷 쇼핑몰도 열었다. 처음에는 고객이 없었지만 지금은 월 2000~3000위안(약 33만~49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인간의 잠재력은 무한하다. 못할 것이 없다'는 말을 좋아한다는 쑤바오쥔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다고 말했다.

/정리=조선미기자

metro Brazil

cebe quase
es por dia

quipamento na primeira semana eram de fora do País

축구 영웅 펠레기념관 하루 방문객 1000명

6월 16일 문을 연 펠레 기념관이 8일 만에 벌써 누적 방문객 7200명을 돌파했다. 하루에 평균 1000명의 사람들이 기념관을 방문한 셈이다.

'축구의 황제'라는 명성 답게 펠레 기념관 안에는 그의 업적을 기린 사진, 비디오, 개인물품 등이 전시돼 있다.

시 측 운영 관계자에 의하면 방문객의 60%는 외국인일 정도로 대외 인지도도 매우 높다.

관광국의 루이스 기마랑이스 지아스는 "외국인이 많이 찾는 다는 것은 기념관이 이미 해외에도 충분히 알려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월드컵 관람을 위해 브라질을 찾은 관광객을 포함해 세계 각지의 다양한 관광객을 유치해야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현재 기념관에는 많은 이가 방문하고 있지만 시는 하루에 2000명이 방문해 매달 5만 명의 사람들이 기념관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파울루를 찾는 관광객들이 근교 상투스시를 찾아 기념관을 둘러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지아스는 본격적인 여름 시즌이 시작돼 관광객들이 증가하면 기념관은 더욱 성황을 이룰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미국의 멤피스가 엘비스 프레슬리 박물관으로 그의 팬의 발길을 잡았듯 전 세계에 퍼져있는 스포츠 팬들은 영원한 전설인 펠레의 발자취를 따르기 위해 상투스로 모여들 것"이라고 자신했다.

/카두 프로이에치 기자

정리=손동완 인턴기자

market index <30일>

코스피 2002.21 (+13.70)

코스닥 537.06 (+5.63)

금리(국고채 3년) 2.68 (-0.01)

환율(원·달러) 1011.50 (-3.00)

뉴스&뉴스

골라먹는 복숭아 30일 서울 중구 봉래동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경북 청도와 영천에서 수확한 '부드러운 복숭아'와 '아삭한 복숭아'를 시세대비 10% 저렴하게 판매해 눈길을 끌고 있다. /연합뉴스

휴대폰 가입비 50% 추가인하

●미래창조과학부가 휴대전화 가입비를 전년 대비 50% 추가 인하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올해 8~9월 중 휴대전화 가입비를 전년 대비 50% 추가 인하를 실시한다. 8800~9900원대인 이통3사 유심(USIM) 가격을 10% 인하한다. 이와 함께 이통3사는 10월까지 모두 선택형 LTE 요금제를 출시해 이용자가 자신의 소비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LTE 선불 데이터 요금제도 출시할 계획이다. /이재영기자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자가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금 수익자 지정·변경권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세월호 피해자의 사망보험금이 부양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이혼 부모에게 지급된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다음 달 15일부터 새로운 보험 안내자료를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고, 유의사항 안내문 발송은 보험회사가 자체 일정을 고려해 시행할 계획이다. /김현정기자

KT, '알짜 자회사' 왜 팔까?

issue&view

황창규호, KT렌탈·KT캐피탈 정리

통신력 강화 급선무… 추가 매각 가능성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황창규 KT 회장이 KT렌탈·KT캐피탈 등 알짜 자회사 매각을 통해 그룹의 재도약에 나섰다.

KT는 27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사업자로 가기 위한 역량 집중 필요성에 따라 계열사인 KT렌탈과 KT캐피탈의 매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KT는 매각 추진을 위한 자문사를 조만간 선정하고 매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005년 10월 설립해 차량 렌탈과 일반 렌탈 등 사업을 벌이고 있는 KT렌탈은 지난해 기준 매출 8852억원, 영업이익 970억원, 당기순이익은 323억원을 기록했다. 직원수도 5월 현재 1084명에 이른다.

2006년 12월 설립한 KT캐피탈은 리스·할부금융, 기업금융, 개인금융, 신기술금융 등 사업을 추진하며 지난해 매출 2202억원, 영업이익 470억원, 당기순이익 362억원이었다. 직원수는 5월 현재 175명이다.

업계에선 KT의 자회사 매각 결정이 예상된 수순이라면서도 순이익이 300억원대에 달하는 알짜 계열사인 KT렌탈과 KT캐피탈을 매각하는 것은 다소 의외라는 입장이다.

앞서 황창규 회장은 지난달 2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KT 회장으로 취임한 뒤 살펴보니 계열사가 다소 많은 것 같다"며 "통신시장 경쟁력 강화와 5대 전략 사업 부분을 중심으로 계열사 조직 개편을 구상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특히 황 회장은 "KT는 통신력 강화가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통신시장이 포화상태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는 만큼 점진적으로 통신력 강화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매각과 관련해 KT측은 이 같은 황 회장의 의중을 거듭 강조했다.

KT 관계자는 "이번 계열사 매각 추진은 KT그룹의 ICT 역량 집중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그룹의 핵심 경쟁력 제고와 성장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KT는 KT렌탈과 KT캐피탈의 매각을 통해 확보한 현금을 ICT 분야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자금으로 이용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KT가 4월 진행한 8300여명의 명예퇴직자에 대한 비용과 사실상 실패한 BIT 프로젝트의 영업지원시스템(BSS) 재설정·구축을 위한 투자 비용 확보 등에 투입될 현금유동성 확보를 위해 쓰일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KT렌탈과 KT캐피탈뿐 아니라 또다른 KT 계열사의 매각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황 회장이 경쟁력이 약한 계열사는 정리하는 등 비용을 줄이고 시장을 선점하는 전략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실적이 떨어지는 비통신 계열사들에 대한 추가 매각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다. 또 KT스카이라이프와 KT미디어허브처럼 비슷한 산업군의 계열사를 하나로 합병하는 방안도 지속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종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KT는 통신과 시너지가 없는 업체를 매각해 주력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자회사 인수와 명예퇴직금 지급으로 늘어난 차입금을 줄여나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력 사업과 시너지가 적거나 수익성이 부진한 자회사는 선별적으로 매각하고 유사 계열사 간 통합을 추진함으로써 비용구조를 개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봇·쥬쥬 만나러 가자 영실업이 30일 일산 킨텍스에서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을 위해 '시크릿 어드벤처'를 오픈했다. '시크릿 어드벤처'에서는 어린이들이 또봇과 쥬쥬의 애니메이션 배경을 재현한 공간에서 공 던지기, 장애물 통과, 쿠킹, 페달보트 등의 놀이를 즐길 수 있다. /영실업 제공

블로그 금융상품 추천 알고보니 '광고'

금감원 심의강화 지도

최근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지식검색 등에 올라온 금융상품 추천 글이 홍보를 노리는 광고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30일 블로그 등 인터넷상에 광고 심의를 받지 않은 허위·과장 내용으로 고객을 속일 가능성이 커 금융상품 온라인 광고심의를 강화하도록 지도했다.

이는 입소문이 퍼진다는 의미의 '바이럴 광고'로 네이버에서 키워드 검색 시 '햇살론' 14만건, '의료실비보험' 13만건 등이 검색될 정도다.

금감원이 다수 글을 올리는 햇살론 블로거가 운영하는 게시글을 확인해보니 햇살론 외에도 다양한 대출상품을 안내하는 내용이 있고, 모든 게시물에 같은 대출상담사 연락처를 표기해 대출세일에 사용되는 블로그로 추정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블로그 등에서 금융상품 바이럴 광고는 외형상 소비자의 사용 후기, 전문가 추천 등 형태를 띠고 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 입소문 효과를 노린 금융사의 광고 상품"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상품 바이럴 광고가 금융협회의 광고 심의를 받는 온라인 광고에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금융협회 등에 광고심의 강화를 지도했다.

일부 블로거 등은 금융사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특정 상품에 대한 추천 글 등을 게시했을 가능성도 있고, 개인적인 견해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금융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김현정기자 hjkim1@

동부제철 채권단

자율협약 추진할 듯

동부제철 채권단이 자율협약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30일 오전 동부제철 채권단은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동부제철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를 전제로 한 사전 협의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농협·하나·신한·우리·국민·외환·기업은행 등 10개 채권 금융기관의 부장·팀장급 직원 2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 결과 채권은행들은 자율협약에 참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채권단은 지난 24일 동부제철과 자율협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으나, 신보가 회사채 차환발행 등의 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워크아웃으로의 전환 가능성도 제기됐다.

자율협약은 채권단과 기업 간 합의로 진행하는 사적인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으로 채권은행 100%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신보는 동부제철 회사채 차환 지원에 대해 조건부 찬성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져 최종 확정까지는 아직 걸림돌이 남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부제철은 30일 채권단에 자율협약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한 상태로 신청서가 접수되면 채권단이 자율협의회를 개최해 자율협약 착수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 궁 호
사장·편집인	김 종 학
편 집 국 장	조 민 호
광 고 문 의	02)721-9851.3
독 자 센 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特별시 가00206

Messengers of Peace
세계스카우트연맹
평화메신저 프로그램

청소년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 1호

당신의 대한민국이
당신의 발걸음을 기다립니다

20주년 기념 평화통일체험활동 | 내가 나라의 주인공이다 |

'휴전선 155마일 횡단'

2014. 7. 28.(월) ~ 8.4.(월)

강화도 → 휴전선 일대 → 고성 통일전망대(249km)

중 · 고 · 대학생 155명

15만원(참가비 5만원, 참가보증금 10만원)

*완주한 참가자에 한해 보증금을 환급 해드립니다

www.donga-otsuka.co.kr / www.scout.or.kr

www.dmz155.or.kr

2014. 7. 4(금) 18:00

모자, 티셔츠, 반바지, 양말, 배낭, 간식(소이조이, 포카리스웨트 외) 등

주최
후원

중소형 생보사도 구조조정

우리아비바, 1년차 이상 직원 희망퇴직 받기로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국내 생명보험사 '빅3'에서 시작된 인력 구조조정 회오리가 업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ING생명은 새로운 경영혁신 차원에서 대규모 조직개편에 나선다. ING생명은 '100일 프로젝트'를 통해 임원 32명(부사장 4명·전무 3명·상무 25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사임했다. 이보다 앞서 이재원 마케팅 총괄 부사장과 원미숙 운영 총괄 부사장도 회사로부터 사직 권고를 받고 퇴임한다. ING생명은 곧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부서를 통폐합한 뒤 부서장급 인력을 정리할 계획이다. ING생명에서 부서장급 이상은 70~80명에 달한다.

NH농협생명과 합병을 앞둔 우리아비바생명은 7월 4일까지 입사 1년차 이상의 직원을 상대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우리아비바생명 노동조합과 사측은 근속연수에 따라 희망퇴직자에게 최저 15개월치(1년차 근무자)에서 최대 25개월치(20년차 근무자)의 평균 임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또 사원부터 부장까지 근속연수와 직급에 따라 최저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에 달하는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사측이 애초에 노조에 제시한 희망퇴직 조건보다도 훨씬 상향 조정된 것이다.

당시 사측은 근속연수 15년차 이상의 직원에게 18개월치 평균 임금을 지급하고, 5년차 이상은 12월치, 5년차 미만은 2개월치의 평균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중소형사 가운데 에이스생명도 최근 조직 통폐합을 실시하면서 임원 숫자를 대폭 줄였고, 알리안츠생명은 지난해 말 이미 희망퇴직을 실시하면서 구조조정을 일부 단행했다.

/김민지기자 minji@

대학생 경제·금융 워크숍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대학생 경제·금융 워크숍과 재무설계 프레젠테이션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그룹별로 모여 의견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소폭 상승

전년 동월보다는 낮아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5월 말 0.98%를 기록하며 전월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융감독원은 '국내은행의 대출채권 및 연체율 현황'을 발표하며 원화대출 연체율이 전월 말의 0.91% 대비 0.07% 포인트 올랐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체율 상승에 대해 "5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이 연체정리규모를 상회한 데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국내은행의 원화대출채권 잔액은 1200조원으로 전월 말 보다 8조8000억원 증가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대출은 각각 179조8000억원, 506조7000억원으로 전월보다 늘었고 기업대출 연체율은 1.17%로 0.1%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대출의 경우 주택거래량 감소 등에 따라 2조원 증가한 484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가계대출 연체율은 0.74%로 전월대비 0.05% 포인트 높아졌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상장사 실적 전망 줄줄이 하향

환율 폭탄 발목 잡혀… 철강업종은 개선 기대

국내 기업들의 2분기 실적시즌이 임박하면서 개별 업종과 기업의 실적 성적표에 관심이 쏠렸다. 시장에서는 실적 기대감을 전반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4일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주요 상장사의 올해 2분기 실적발표 시기가 시작한다.

먼저 국내 증시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2분기 영업이익이 8조원을 밑돌 가능성이 제기됐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증권사 26곳이 추정한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익은 8조2477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권사별 전망치를 보면 LIG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각각 7조8900억원, 7조9140억원 등 7조원대 후반을 제시한 곳도 나왔다.

원화 강세가 실적 우려의 주요인으로 거론됐다.

삼성전자와 함께 양대 수출주로 꼽히는 현대·기아차도 지난해보다 부진할 전망이다.

현대차의 2분기 영업익 전망치는 2조316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 감소한 수준이다. 기아차의 경우 9503억원으로 1년새 15.6%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른 기업들은 업황별로 희비가 갈릴 전망이다.

먼저 LG전자는 'G3' 등 전략 스마트폰 판매가 글로벌시장에서 호응을 얻으면서 실적 약진이 기대된다.

LG전자의 2분기 영업익 전망치는 523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철강 업종은 원화 강세가 원가 하락 효과를 일으켜 오히려 실적 개선요인으로 작용한다.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현대제철의 2분기 영업익은 3200억원으로 62.8% 증가하고 출하량도 전분기보다 3.5% 늘어날 전망이다.

포스코의 경우 2분기 영업익은 863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4% 줄어들겠으나 출하량이 전분기보다 1.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서명찬 키움증권 연구원은 "경기는 시간을 두고 서서히 변화를 보일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펀더멘탈 변화를 주의깊게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푸조 뉴 308이 30일 국내에 처음 선보였다.

푸조 308, 골프에 '도전장'

최고출력 150마력…3390만~3740만원

푸조를 공식 수입하는 한불모터스가 30일 송파전시장에서 뉴 308을 국내 언론에 공개했다.

뉴 308은 유럽에서 폭스바겐 골프, 포드 포커스와 경쟁하는 모델이다. 이전 세대 모델보다 차체 길이를 20mm 줄이고 높이는 30mm 낮추는 한편, 차체 너비와 휠베이스를 10mm 넓혔다. 또한 새로운 플랫폼인 EMP(Efficient Modula Platform)2를 적용해 차체 무게를 140kg 낮췄다.

외관은 기존의 푸조 모델들에 비해 덜 튀지만, 푸조의 브랜드 코드인 '스피드' '하모니' '펠린' '다이내미즘'을 업그레이드 해 안정감 있는 스타일이 완성됐다. 동급 최초의 풀 LED 헤드램프도 돋보인다. 62개의 LED로 구성된 헤드램프는 할로겐 전조등보다 에너지를 50% 덜 소비하고, 눈의 피로도 덜어준다.

운전석에는 비행기 조종석에서 영감을 얻은 '아이-콕핏(i-Cockpit)'을 채택했다. 여기에는 △다이내믹하면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돕는 콤팩트한 사이즈의 스티어링 휠 △운전자 눈 높이에 맞춰 설계한 헤드업 인스트루먼트 패널 △직관적 주행 환경을 실현시켜주는 9.7인치 대형 터치스크린이 포함된다. 특히 센터페시아의 버튼을 최소화하는 대신, 터치스크린을 이용해 내비게이션과 전화, 멀티미디어 등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편의장비는 동급 최고 수준이다. 레이더를 이용해 차간 거리를 유지하는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후방 카메라, 스마트키 등이 갖춰져 있다.

푸조가 새로 개발한 2.0ℓ e-HDi 엔진은 최고출력 150마력과 최대토크 37.8kg·m의 성능을 낸다. 유로6 기준에 맞게 설계됐고 실생활에서 많이 쓰는 2000rpm 구간에서 최대토크가 나온다는 게 한불모터스 측의 설명이다. 뉴 308의 연비는 도심 13.4km/ℓ, 고속도로 16.4km/ℓ, 복합 14.6km/ℓ다.

국내시장에는 2.0 악티브(3390만원)와 펠린(3740만원) 두 가지 트림으로 출시된다.

한불모터스가 새롭게 뉴 308을 출시함에 따라 수입차시장 판도에 변화가 있을지도 관심을 끌게 됐다. 기존 푸조 308은 올해 1~5월에 229대가 판매됐으며, 308SW는 187대 팔렸다. 반면에 폭스바겐 골프는 5월까지 2792대나 팔리며 압도적인 인기를 과시하고 있다.

/임의택기자 ferrari5@

광대역 LTE-A 누가 이길까

issue&view
이동통신3사 결산·전망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7월1일 세계 최초 상용화 관심
상반기 영업정지·정보유출 진통

영업정지, 고객정보유출, 통화장애 등 올 상반기 통신업계는 다사다난했다. 7월 1일부터는 전국 광대역 LTE-A 시대가 열린다. 영욕의 상반기를 겪은 통신사 이슈를 정리하고 하반기를 전망해본다.

통신3사의 영업정지는 올봄 큰 화제였다. 고객 유치를 위해 불법 보조금을 남용한 통신3사는 영업정지란 된서리를 맞았다. 영업정지 기간에도 통신사들은 서로의 불법 행위를 고발하며 진흙탕 싸움을 계속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보조금으로 시장을 혼탁하게 만든 통신 3사에 총 304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시장 과열 주도 사업자로 선별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각각 14일, 7일의 영업정지를 의결했다. 영업정지 진통은 하반기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올초 금융업계에서 시작된 고객정보 유출 파문은 통신업계도 피할 수 없었다.

황창규 KT 회장은 지난 3월 7일 KT 올레닷컴 홈페이지 해킹으로 인한 고객정보 유출로 취임 한달여 만에 고개를 숙였다. 지난 2012년에도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고를 겪었던 KT는 또다시 관리 소홀로 1200만건이 넘는 고객 정보가 대량 유출돼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었다. 최근 방통위는 KT에 과징금 7000만원과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 KT는 유감의 뜻을 표했지만 개인정보 피해 고객 한명당 7원에 불과한 벌금이라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도 있다.

KT 고객정보 유출 사건이 터진 뒤 얼마 안 되어 SK텔레콤은 대규모 통화 장애로 대국민 사과를 했다.

지난 3월 21일 오후 6시 SK텔레콤의 네트워크 장비 가입자 확인 모듈 장애로 이용자들은 음성 통화와 데이터 서비스 송수신 장애를 입었다. SK텔레콤은 직접 피해 고객 560만명을 포함한 전체 가입자 2500만명에게 요금 감면 보상을 시행했다. SK텔레콤은 피해 약관 규정 이상의 보상을 벌였지만 통신장애로 생계 활동에 지장을 입은 택배·콜택시·대리운전 업계의 반발에 휩싸였다. 일부 피해자들은 집단 소송도 걸었다.

한편 통신3사의 무한 경쟁은 세계 최초로 광대역 LTE-A 상용화란 기록을 낳았다.

당초 예정일은 7월 1일이었지만 6월 19일 SK텔레콤이 삼성전자와 손잡고 세계 최초 상용화를 발표하면서 KT와 LG유플러스도 조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통신3사의 전국 광대역 LTE-A는 7월 1일부터 정식 시작된다.

통신업계는 하반기에도 과열된다.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의 추가 영업정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안 발효, 3밴드 LTE-A 연말 상용화 등 통신 전쟁 2라운드는 계속된다.

헤리티지 체스 에디션과 함께하는 '세븐데이' 30일 서울 중구 금강제화 명동점 헤리티지 라운지에서 모델들이 1년에 단 한 번 헤리티지 편집샵 모든 제품을 20% 세일하는 '세븐데이'를 기념해 헤리티지의 스페셜 에디션인 '체스 에디션'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성으로도 UHD방송 본다"

미래부, 관련 기술기준 제정

미래창조과학부는 위성초고화질(UHD)방송상용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기준을 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위성을 통해서도 UHD 방송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됐다.

이번에 제정된 위성 UHDTV 기술기준의 내용을 보면 영상압축방식에 신규압축기술(HEVC)을 추가하고 다중화·변조 등 기술적인 상세조건을 위성방송사가 세부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또 관련 설비가 신규 위성방송용 주파수(20~21㎓)대역까지 지원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주파수 범위를 확장했다.

위성 UHD 방송은 2012년 10월부터 천리안 위성을 이용한 실험방송을 했다. 이달부터 KT스카이라이프가 상용위성인 무궁화위성을 통한 전국 UHD 방송채널 '스카이 UHD'를 개국해 실험방송을 하고 있다.

이번 기술기준 제정에 이어 연내 위성방송용 셋탑박스가 출시되면 전국에서 위성을 통한 UHD방송 서비스 수신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KT스카이라이프는 올해 12월 가정에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UHD 방송을 즐길 수 있는 보급형 셋톱박스를 출시해 상용화하고 내년까지 채널 수를 3개로 늘릴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재영기자 ljy0403@

최태원 회장, SK C&C 지분매각 "왜?"

지배구조 이상 無… 양사 사업분야 '윈윈' 전략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계열사인 SK C&C의 지분 4.9%를 대만 홍하이 그룹에 매각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SK C&C는 사실상 SK그룹의 지주회사로, 최태원 회장이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하이그룹은 30일 자회사 베스트 리프 엔터프라이즈를 통해 최 회장이 보유한 SK C&C 지분 244만9500만주를 3810억원에 매입했다고 대만증시에 공시했다. 홍하이그룹의 주력인 폭스콘은 애플·MS 등을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종업원 수가 120만명, 한 해 매출액이 148조원에 이르는 대만 1위 기업이다.

SK측은 홍하이의 이번 지분 매입이 양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윈윈'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최태원 회장 개인의 입장에서 지분 매각대금으로 실탄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최 회장은 여러 논란으로 계열사의 연봉 수입이 사라져, 주요 소득원이 SK C&C의 배당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회사차원에서 보면 양사 모두 사업적인 면에서 새로운 사업기회를 모색하는 등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

홍하이는 애플 등의 제품을 주문자 상표 부착(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팍스콘의 모기업으로 최근 사업구조를 개편해 ICT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홍하이 그룹 회장은 아이폰 생산기지인 폭스콘의 공장자동화를 위해 벤치마킹 업체를 모색하다 2주전 SK C&C 방문한 바 있다.

SK C&C는 중국·대만에서 새로운 사업기회를 가질 수 있다.

SK 관계자는 "ICT서비스 영역으로 진출하려는 홍하이가 SK C&C의 지분을 매입한 것은 주주로서 강력한 파트너십을 가져가려한 측면이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대만에 여러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며 ""특히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그간 부담으로 작용했던 개인채무를 해소할 수 있어 모두가 좋은 선택"이라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ksgit@

"이통3사 서비스 더 스마트해졌네!"

SKT 'T전화'·KT '올레 팝업콜'·LGU+ 'UWA' 눈길

스마트폰이 이동통신 3사의 서비스와 만나 더 스마트해지고 있다.

3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T전화', '유와(UWA)', '올레 팝업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며 고객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

이들 서비스의 공통점은 통화 편의성을 높이고, 스마트폰의 기능을 보다 알차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우선 SK텔레콤이 지난 2월 선보인 'T전화'는 전화의 본질적 기능인 '통화'를 음성과 데이터 결합을 통해 업그레이드한 서비스다.

최근 스마트폰에 SK텔레콤의 'T전화', KT '올레팝업콜', LG유플러스 'UWA' 등 서비스가 결합되며 이용자들의 통화 편의성과 스마트폰의 기능 활용도가 높아졌다는 평을 받고 있다. /SK텔레콤·KT 제공

서비스 출시 4개월만에 100만 가입자가 이용할 정도로 호응도 높다. 특히 'T전화' 이용자들은 '안심통화'와 'T114' 기능을 활발히 이용하며 만족도를 표하고 있다.

안심통화는 다른 이용자가 등록한 전화번호 평가를 공유해 해당 번호의 수신 여부를 결정하도록 돕는 피싱방지 기능이다. 최근 각종 광고·스팸 전화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안심통화 기능은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T114 기능은 '전화번호 안내(114)'를 통하지 않더라도 연락처에서 약 100만여개의 번호를 고객의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순서로 검색하고, 전화번호·홈페이지·지도 등 관련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다.

KT는 27일 고객이 스마트폰으로 게임, 인터넷 서핑, 내비게이션 등을 이용하고 있는 도중에 전화가 걸려와도 화면 전환 없이 기존에 이용하던 기능을 유지하면서 음성통화를 가능하게 하는 '올레 팝업콜'을 선보였다.

올레 팝업콜은 스팸 차단 앱 중 누적 다운로드 1위(730만)를 기록하고 있는 ktcs의 '후후'와도 연동돼 발신자 정보와 해당 전화의 스팸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KT 관계자는 "올레 팝업콜은 기존 경쟁사의 서비스에 비해 다양한 기능을 동일하게 서비스하면서도 '번호 안내 서비스', '잔여량 조회 서비스' 등과 분리해 앱 실행 메모리를 보다 가볍게 했다"며 "그만큼 이용자들은 다양한 서비스를 자연스럽게 이용하면서도 버벅거림 없이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7월 선보인 '유와'를 꾸준히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유와는 통화 중뿐만 아니라 통화하지 않을 때에도 상대방과 실시간으로 휴대전화 화면, 음악, 카메라 공유는 물론 위치공유와 화면 스케치, 게임 공유 등을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다.

지난해 9월엔 유와에 '플러스콜' 기능을 탑재한 데 이어 올 3월엔 음성 인식으로 화면전환 없이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통화할 수 있는 '핸즈프리' 기능까지 제공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스마트폰에 이통3사의 서비스가 더해져 이용자들이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을 보다 알차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스마트 시대에 접어들면서 휴대전화 기능에 단말기 제조사 역할뿐 아니라 이통사의 역할도 중요해졌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안전·건강·교육·양극화 뒷걸음

'삶의 질' 악화되거나 제자리

안전·건강·교육 등 비물질부문 삶의 질이 소득·주거 등 물질부문보다 상대적으로 나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양극화 지표도 뒷걸음질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30일 발표한 총 12개 영역 81종 지표로 구성된 '국민 삶의 질' 측정 지표 체계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70종 지표 중 비교대상 전년도 대비 개선된 지표는 34종(48.6%)이다. 변화가 없는 지표는 14종(20.0%), 악화된 지표는 22종(31.4%)에 달했다.

부문별로 보면 물질 부문(21개)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 공적연금 가입률, 고용률, 1인당 주거면적 등 14개 지표에서 개선되는 등 전반적으로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악화된 지표는 가구평균 순자산과 저임금 근로자 비율 등 6개, 제자리걸음한 지표는 상대적 빈곤율 1개다.

반면 비물질 부문(49개)은 여가활용 만족도, 1인당 도시공원 면적, 유치원 취업률 등 20종 지표에서 개선됐지만 악화(16개)되거나 보합(13개)을 보인 지표가 과반 이상이다. 특히 고혈압유병률, 주관적 건강평가, 비만율 등 건강분야는 일제히 나빠졌다. 독거 노인, 한부모 가구 비율 상승 등 가족·공동체 분야의 지표도 뒷걸음했다. 야간보행 안전도,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등 안전 분야의 점수도 악화됐다.

/이국명기자 kmlee@

삼성 노트북으로 LOL 즐겨요 삼성전자는 지난 29일 서울 강남 곰TV 스튜디오에서 '삼성 노트북과 함께 하는 LOL 프로게이머 초청' 행사를 했다. 이날 행사에서 삼성 노트북을 활용한 LOL 게임 강의와 프로게이머와 함께하는 팀 경기 등의 이벤트가 진행됐다. /삼성전자 제공

원전 공공기관 간부, 재산등록 의무화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1일부터 원전 공공기관의 2직급(부장) 이상 직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 장관 고시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 재산등록 고시'를 제정해 공고했다.

이번 조치는 작년 원전비리 사건을 계기로 안전행정부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시행령에서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 2급 이상 직원을 재산등록 대상자로 포함시키되 산업부 장관이 대상기관을 지정토록 한 것에 따른 것이다.

산업부는 재산등록 대상 기관으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PS ▲한국전력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을 지정했다.

이번 조치로 신규 재산등록 대상자에 포함된 인원은 6개 기관 1500여명이다. 해당 인원은 8월31일까지 재산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세종=유주영기자 boa@

LG CNS, FATCA 솔루션 금융시장 선도

국내 은행 수주 이어 싱가폴·베트남 진출 채비

LG CNS가 7월1일 발효예정인 FATCA(한미간 해외금융계좌 정보교환법) 대응 솔루션을 무기로, 시장선점에 나섰다.FATCA는 미국 납세자의 해외자산·소득관련 세무이행에 대한 구속력을 강화하고,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美 연방법이다. 美 재무당국은 자국 납세자의 해외금융자산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외금융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지난 3월 한·미 양국간 FATCA관련 협정이 타결돼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LG CNS(대표 김대훈)는 지난 2013년부터 은행연합회와 하나·외환은행 해외 점포 및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 FATCA 대응 컨설팅 사업을 수행했다. 또 현재까지 발주된 은행권의 8개 FATCA 전산시스템 사업 중 6개를 수주했다. 국내점포 FATCA 전산시스템 구축은 외환·수협·부산은행에 이어 지난 5월 대구은행 사업을, 해외점포 FATCA 전산시스템 구축은 외환·하나은행 사업을 수주했다.

해외의 경우 싱가폴에서 현지 컨설팅 펌과 함께 사업수주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의 FATCA 대응 사업에 진출할 예정이다.

LG CNS는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을 예측하고 4년전부터 준비해 왔다. 2010년 미국 정부의 법 제정 동향을 감지하고, 2011년부터 금융기관의 프로세스와 시스템 변화 방향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왔다. LG CNS는 고객의 금융거래를 기반으로 FATCA시스템을 구축하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하는 시스템과 잘 연계되어 작동할 수 있는지 △솔루션이 제공하는 기능이 美 국세청의 요구 기준에 부합되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2012년 외산 솔루션 업체와 시장개척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한 데 이어 2013년 은행연합회, 법무법인 광장 등과 FATCA 관련 법규 분석·FATCA 시스템 설계를 완료했다.

/김태균기자 ksgit@

같은 값이면 더 넓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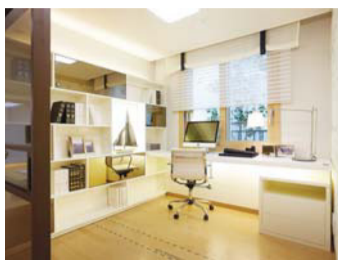
전용면적 절반 가까운 서비스공간 제공… 분양 공략

부동산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서비스면적을 최대화한 아파트가 잇따르고 있다. 공간 활용성을 높인 새로운 평면이 수없이 쏟아지면서 같은 가격으로 보다 넓게 사용할 수 있는 집을 찾는 실속형 수요자들도 늘었기 때문이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1~2년 사이 아파트 서비스면적이 분양 성패를 좌우하는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

올 초 롯데건설이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공급한 '롯데캐슬 골드파크'는 분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에도 계약 20일 만에 완판을 기록했다. 전용면적 71㎡와 72㎡에 84㎡에 육박하는 실사용면적을 제공한 게 주효했다는 평가다.

또 지난해 꺼져가던 중대형 아파트의 불씨를 살린 '래미안 위례신도시' 역시 99㎡에 테라스를 서비스면적으로 제공하면서 청약 대박을 터뜨렸다.

서비스면적이란 분양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보너스' 공간을 말한다. 이에 따라 같은 주택형의 아파트라도 서비스면적에 따라 실사용면적이 달라진다. 또 실질 분양가도 차이를 보이게 돼 건설사들이

포스코건설이 공간기능성을 강화한 98D타입의 알파룸.

서비스면적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는 추세다.

반도건설은 경기도 평택 소사벌지구에 선보인 '소사벌 반도유보라 아이파크' 84㎡ B타입에 전용면적의 절반에 가까운 36.61㎡에 달하는 서비스면적을 제공했다. 또 가변형 벽체를 적용해 거실과 침실 확장시 7.7m에 이르는 광폭거실이 펼쳐지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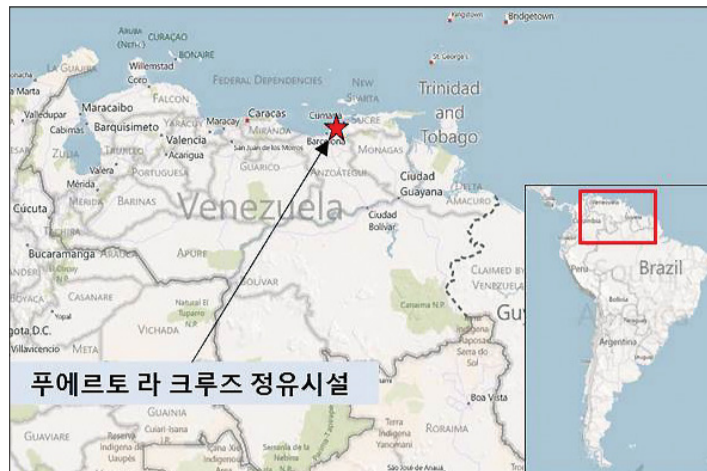
포스코건설이 하남 미사강변도시에서 공급한 '미사강변도시 더샵 리버포레'는 전용면적 85㎡의 획일적인 평면을 벗어나 공간기능성을 강화했다. 89~112㎡에 37~52㎡의 서비스면적을 적용해 자녀방, 드레스룸, 알파룸(자투리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대전 유성구 죽동지구에서 대원이 분양한 '죽동 대원칸타빌'은 84㎡ A타입에 최대 48㎡의 서비스면적을 줬다. 특히 1층 일부 가구에는 테라스를 제공했고, 최상층은 천장 높이를 3.6m로 높여 공간감을 극대화했다.

주택 내부 공간을 넓히는 것에 더해 창고를 덤으로 주는 단지도 등장했다. 신안은 다음달 분양할 '위례신도시 신안인스빌 아스트로'에 세대당 3.3㎡(1평)의 창고를 줄 계획이다. 계성종합건설이 전주 덕진구 인후동에 짓는 '건지산 이지움'도 지하창고를 제공한다.

송종석 신안 홍보팀 이사는 "요즘 아파트 대부분이 수납시설이 잘 설치된 편이지만 잘 안 쓰는 물건들까지 보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그래서 공용공간에 세대별 창고를 제공해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근옥 부동산플래너 팀장은 "공급자에서 수요자 위주로 부동산시장이 변하면서 건설사들이 높아진 수요자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밖에 없게 됐다"며 "실속형 수요자들이 늘면서 당분간 이들의 구미를 당길 수 있는 서비스공간이 극대화된 평면 출시가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선옥기자 pso9820@metroseoul.co.kr

현대건설이 베네수엘라서 수주한 푸에르토라크루즈(Puerto La Cruz) 정유공장 위치도.

현대건설, 베네수엘라서 4조9000억 공사 따냈다

현대건설이 29일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PDVSA)에서 발주한 48억3674만 달러(약 4조9000억원) 규모의 푸에르토라크루즈(Puerto La Cruz) 정유공장 확장과 설비개선 공사를 수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사는 현대엔지니어링과 중국의 위슨엔지니어링이 공동으로 수주했다. 이 중 현대건설 지분은 72%인 34억6939만 달러(약 3조5000억원)이고, 현대엔지니어링과 위슨엔지니어링은 각각 18%, 10%다.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동쪽으로 약 250km에 위치한 정유공장의 시설 및 설비를 고부가가치 석유제품으로 생산하기 위해 개선하는 프로젝트로,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7개월로 예정돼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기존 중동 중심 시장에서 범위를 넓혀 신흥시장 발굴에 적극 나선 결과, 중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며 "향후에도 현대건설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력 등을 바탕으로 영업력 확대와 해외 발주처와의 상호협력과 파트너십을 강화해 신흥 시장에서 수주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올해 칠레 차카오 교량 공사, 이라크 카르발라 정유공장 공사 등을 포함해 이번 베네수엘라 정유공장 공사를 수주함으로써 6월 말 현재 60억 달러에 가까운 공사를 수주하며 올해 해외수주 목표(110억 달러) 달성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박선옥기자

대림그룹의 첫 번째 민자발전소 포천복합화력발전소 1호기 대림그룹의 첫 번째 민자발전소인 포천복합화력발전소 1호기가 7월 1일 본격적인 상업운전에 돌입한다. 포천복합화력발전소 1호기는 780MW의 전력을 생산하며, 오는 8월 2호기가 준공되면 총 1560M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약 50만 가구가 동시에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규모로 올 여름 수도권의 전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림그룹 제공

'강남역 센트럴애비뉴' 눈길 스트리트형 상가로 각광

최근 스트리트형 상가가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쇼핑·문화·여가 등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다는 강점 덕분에 초기 분양률이 높고 공실률은 낮게 나타나고 있어서다.

대우건설이 시공한 '강남역 센트럴애비뉴'는 강남역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동선과 통로를 철저히 분석해 설계된 4면 개방 스트리트형 몰링상가다. 공간구조 분석기법인 스페이스 신택스(Space Syntax)기법을 토대로 고객 유도성을 높인 게 특징이다.

'강남역 센트럴애비뉴' 투시도.

최근 5년간 일대에서 공급된 오피스텔 중 최대 규모인 '센트럴 푸르지오시티' 단지 내 상가로, 점포 수만 116개에 달한다. 총 728실의 오피스텔 입주민은 물론, 주말 최대 35만~40만 명에 이르는 강남역 유동인구와 2만여 명 규모의 오피스타운 상주인구를 갖췄다.

상가 1층과 2층은 다양하고 넓은 데크형 외부공간을 확보했다. 고객들에게는 편안한 휴게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고, 상인들에게는 폭넓은 영업환경을 제공할 전망이다.

신분당선과 환승이 가능한 강남역 1번 출구가 34m 거리에 위치했으며, 주변 상권에서는 보기 힘든 약 400㎡ 규모의 공개공지 2개소와 9m 폭의 보차혼용도로 등을 확보했다. 이외 약 400대 수용 가능한 주차장, 유지·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적용됐다.

분양사무실은 강남역 2번 출구 앞에 마련됐다. 2015년 3월 입점 예정이다. 문의: 02-583-3880

‘하이브’ 모바일게임 플랫폼 ‘중국화’ 제동?

게임빌 컴투스 손잡고 글로벌 타깃…텐센트 알리바바 상륙 대항마로

모바일게임 플랫폼 경쟁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구글의 앱장터인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양강이 건재한 가운데 카카오톡이 국내에서 여전히 큰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고 밴드와 라인이 도전장을 던졌다. 여기에 국내 모바일게임을 대표하는 게임빌과 컴투스는 글로벌 통합 플랫폼을 선보였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플레이-앱스토어-카카오게임하기 트로이카 체제에 반기를 든 새로운 플랫폼이 연이어 등장하고 있다.

네이버의 글로벌 모바일메신저 라인은 일찌감치 5억명에 달하는 해외 유저를 활용해 게임을 유통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렇다할 성과가 없지만 해외에서 3억건의 게임 내려받기를 돌파하는 등 미래가 밝다.

지인형 SNS 밴드를 기반으로 한 밴드게임도 조용히 덩치를 키우고 있다.

구글플레이 인기·매출 순위 100위권에 ‘역전!맞짱탁구’가 유일할 정도로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입점 무심사 원칙’을 바탕으로 킬러 콘텐츠를 조금씩 확보한다면 무시하지 못할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다.

게임빌과 컴투스가 25일 론칭한 글로벌 모바일게임 통합 플랫폼 ‘하이브’도 오늘보다는 내일이 기대된다.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실제로 게임을 즐기는 모바일게임 유저 중심으로 플랫폼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로그인, 소셜, 커뮤니티 등의 멤버십 기능은 물론 보안, 통계, 업데이트 등의 시스템 관리, 배너, 공지, 푸시, 고객 문의 등의 게임 운영과 마케팅 기능이 제공된다.

중국을 대표하는 IT기업 텐센트, 알리바바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막강한 자금력을 지닌 두 기업은 호시탐탐 국내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다. 이미 다수의 게임 제작사와 손을 잡았거나 물밑 접촉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텐센트가 국내 1위 모바일게임사 CJ넷마블에 5300억원을 투자하고 지분 28%를 매입한 것은 ‘모바일 플랫폼의 중국화’를 알리는 서막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거액의 돈을 온라인게임에 투자해 이미 한국을 추월한 중국이 모바일게임에서도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하이브처럼 글로벌 유저를 타깃으로 하는 플랫폼이 대항마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꼼꼼IT리뷰-파나소닉 HX-A100

두 손이 자유로운 캠코더

스마트폰 연동···셀캠·셀카 척척

한강에서 자전거를 탈 때면 멋진 풍경을 동영상으로 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 ‘핸들을 잡은 두 손 이외에 캠코더를 찍을 손이 하나 더 있으면 좋을텐데’라는 공상에 빠질 때가 있을 정도다.

파나소닉의 캠코더 ‘HX-A100’은 이같은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제품이다. 30g의 렌즈를 귀에 걸고 117g의 본체를 팔에 착용한 채 내가 바라보는 시선에서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

조작방법도 간단하다. 전원·동영상·사진 등의 버튼만 누르면 자전거를 타면서 보이는 멋진 풍경을 손을 쓰지 않고 담을 수 있다.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잠금버튼도 있다. 충격으로 인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액정스크린을 탑재하지 않은 대신 스마트폰 연동기능을 제공한다. 덕분에 ‘셀캠’(셀프 동영상)은 물론 셀카도 손쉽게 찍을 수 있다. 와이파이로 연결하면 스마트폰으로 캠코더 조작은 물론 찍히고 있는 동영상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찍은 동영상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에 바로 올릴 수도 있다. 수심 1.5m 방수 기능도 들어있어 수영장이나 바닷가에서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손떨림 방지 기능과 자동으로 수평을 맞춰주는 수평레벨 촬영 기능도 탑재돼 초보자도 사용하기 손쉽다.

하지만 스포츠 촬영에 특화한 탓 때문인지 실내나 야간 촬영 화질은 조금 부족하다. 한시간 정도 밖에 버티지 못하는 배터리 용량도 다소 아쉽다.

/이국명기자 kmlee@

우리가족 무선할인 받으세요 KT는 3G·LTE 신규 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재약정 고객이 KT 모바일 회선을 가족 내 KT 모바일 회선과 결합하면 24개월 동안 본인의 이용요금에 따라 할인해주는 ‘우리가족 무선할인’을 출시한다. /KT 제공

대교 교육용 태블릿PC 사업 진출

‘꿈꾸는 달팽이 교육탭’ 39만원대 출시

대교CNS는 영유아용 ‘꿈꾸는 달팽이 키즈 교육탭’을 30일 선보였다.

이 제품은 교육서비스 기업 대교의 ‘꿈꾸는 달팽이’ 콘텐츠를 엄선해 담았다. 총 245편의 콘텐츠를 활용해 유아기에 꼭 필요한 기본 소양 교육과 능력 배양이 가능하도록 구성됐다.

특히 ‘꿈꾸는 달팽이 키즈 교육탭’은 누리과정에 맞춘 콘텐츠 구성으로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등 영역별 학습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콘텐츠를 소비할 때마다 추가로 결제해야 하는 경쟁사 제품과 달리 기기에 모든 콘테츠가 다 들어가있다.

아이들의 사고력과 감수성을 키워주는 ‘이야기속 수학’ ‘원리똑똑 과학동화’ ‘생활동화’ ‘샌드아트’ ‘하모니 악기’ ‘브레인 점프점프’ 등 누리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콘텐츠를 담고 있다.

또 아이들이 영어와 쉽게 친해질 수 있도록 동요, 명작동화 등을 영어로 배울 수 있는 기초 영어학습 콘텐츠가 탑재돼 있다. 유아동 정서와 생활을 반영한 이야기 콘텐츠를 통해 독서의 즐거움도 경험할 수 있다.

‘꿈꾸는 달팽이 키즈 교육탭’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기반의 7인치 태블릿으로 1.5GHz 듀얼코어 CPU를 탑재했다. 8GB 기본용량에 16GB SD카드를 추가로 무료 제공한다. 또 미니 HDMI포트를 지원해 스마트TV등 다양한 디지털기기와 연동해 사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기능을 지원하며 구글 CTS 인증을 획득해 구글 플레이 등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부모용 태블릿으로도 손색이 없다. 39만9000원.

/박성훈기자

한여름 보양식으로 건강 챙기세요

나또·골드파인·오리고기 등 무더위 해소 식품 인기

뜨거운 햇살과 높은 기온으로 입맛도, 건강도 잃기 쉬운 여름이다. 삼계탕·홍삼·장어 등 몸에 좋은 음식이 간절하지만 이런 음식을 매일 챙기기는 쉽지 않다. 이에 간단히 먹을 수 있으면서도 건강에 좋아 여름철 보양식으로 주목받는 음식들을 소개한다.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나또'

먼저 미국의 건강 잡지 '헬스'가 선정한 세계 5대 건강식품 중 하나인 '나또'가 있다.

콩을 48시간 이상 발효해 만드는 나또에는 콩의 영양 성분이 그대로 있을 뿐 아니라 발효를 통해 몸에 유익한 성분까지 더해져 콩 이상의 장점이 있다.

특히 나또에 함유된 나또키나제 성분은 혈관을 막는 혈전(노폐물) 생성을 억제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한국혈전지혈학회는 나또가 혈전을 예방하는 식품이라고 인정해 인증서를 부여하기도 했다. 또 식이섬유와 유산균이 풍부해 장 운동과 배변 활동을 돕는다.

시중에 나온 대부분의 제품이 일본산이지만 최근에는 100% 국산 콩으로 만들어진 풀무원 '나또'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국산 콩으로 만들어 안전할 뿐만 아니라 낮은 온도에서 서서히 발효시키는 기술을 사용해 냄새가 적고 맛도 좋기 때문이다. 아울러 '풀무원 유자 나또'도 출시돼 나또 향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자들도 쉽게 접할 수 있다.

◆'골드파인', 체온 낮춰 무더위 해소

여름철 대표 과일로 사랑받는 '파인애플'은 85%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 체내의 열을 낮추는 효과가 뛰어나다. 게다가 비타민과 무기질이 많아 더위에 지친 몸에 미네랄을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이 가운데 델몬트 '골드파인'은 델몬트의 오랜 연구 결과로 만들어진 고품질 신종 파인애플로 일반 파인애플보다 높은 당도를 자랑한다. 또 과육 속의 풍부하고 달콤한 과즙이 더위에 지친 입맛을 돋우고 청량감을 더해준다.

◆지친 체력 보충하는 '오리고기'

예로부터 임금에게 진상하던 '오리고기'는 '날개 달린 작은 소'라 불릴 정도로 풍부한 영양과 맛을 가진 보양식이다.

아미노산이 다량 들어있으며 트랜스 지방 0%의 불포화지방산을 함유해 칼로리 부담이 적다. 또 필수지방산인 리놀레산이 풍부해 동맥경화, 심장병 등 각종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에 오리 브랜드 다향오리는 통오리·정육 슬라이스·도리육·로스·양념육 등 쉽게 오리요리를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또 훈제 슬라이스, 훈제 바베큐, 오리버거 등 가공 훈제육 제품과 함께 소량 포장 패키지도 출시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다이어트, 혼자하지 마라"…SNS '다시' 출시

친구와 함께… 성공률 두 배 높아져

도너츠커넥팅은 소셜 다이어팅 서비스 '다시, 다이어트 시작'(이하 다시)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다시는 다이어트를 함께 할 친구를 찾아주는 커뮤니티형 모바일 다이어트 애플리케이션으로 구글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미시간 주립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온라인을 통해 친구와 함께 다이어트를 할 경우 혼자 할 때보다 더 장기간 노력하고 다이어트 성공률도 두 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착안해 개발된 다시는 다이어트 일상을 그룹 내 유저들과 공유할 수 있으며 건강한 다이어트 습관을 유도하는 미션 수행과 1대1 퍼스널 트레이닝 방식의 워크아웃으로 체계적인 다이어트를 돕는다.

회원가입 시 간단한 다이어트 정보를 입력하면 소셜 매칭을 통해 같은 지역의 사용자끼리 그룹으로 연결된다. 멤버들은 서로의 다이어트 활동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다시가 제시하는 크고 작은 목표를 달성하면 다이어트 과정을 격려하는 배지가 지급되거나 프리미엄 이용 기간이 연장되는 등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정기남 도너츠커넥팅 대표는 "기록 중심의 기존 다이어트 프로그램 사용자들이 기록 자체에 대한 스트레스로 다이어트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친구들끼리 서로 응원하면서 다이어트를 하면 의지를 자극해 생활습관을 자연스럽게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다시' 앱을 개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다시는 출시 후 15일 이내 앱 다운로드 및 가입을 하는 이용자에게 1개월 프리미엄 이용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홈페이지(http://dasi.c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

배 나와도 날씬하면 건강하다?

요통 있으면 척추전만증 의심해야

날씬한 체형임에도 유독 배가 나온 사람들이 있다. 비만인 체형의 경우 복부비만이 있을 수 있지만 날씬하면서도 배가 나왔다면 척추 변형이 있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바른 자세 유지가 허리 건강 지키는 길

척추는 S자 모양으로 완만하게 휘어져 있다. 척추가 측면으로 휘어지면 척추측만증, 앞으로 휘어 변형되면 척추전만증이다.

실제로 배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척추 변형으로 배가 나온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척추전만증일 가능성이 크다. 척추가 앞으로 휘어 배가 나오고 엉덩이가 뒤로 빠진 모양으로 체형이 변하기 때문이다.

척추전만증은 체형 변화와 요통 외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어 질환이 시작돼도 잘 모르는 경우가 흔하다. 또 디스크나 척추측만증보다 발병률이 낮지만 보행 장애나 신체 기능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이 질환은 일반적으로 장시간 앉아서 업무를 보는 사무직 종사자들에게 많이 생기며 하이힐을 즐겨 신는 여성이나 키높이 깔창을 까는 남성들에게도 종종 발생한다. 발뒤축이 위로 올라가면서 몸의 중심이 계속 뒤로 쏠려 그만큼 허리에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다.

특히 임산부들은 주의해야 한다. 배가 불러오면 무거운 배를 지탱하기 위해 허리를 뒤로 젖혀 배를 내밀고 걷는 경우가 많고 이런 행동은 몸의 균형을 흐트러뜨리면서 척추전만증을 야기한다.

증상이 가볍다면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면서 운동 및 재활치료를 통해 어느 정도 교정이 가능하다. 게다가 평소 척추 주변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습관화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 반면 질환을 방치하면 통증과 척추 변형이 심해져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조태연 노원튼튼병원 원장은 "척추전만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몸을 곧게 펴고 머리를 들어 전방 5~6m를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시선을 유지해야 한다. 가급적이면 높은 굽 신발을 피하고 직장인들은 일하는 중간중간 허리를 풀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재용기자

GSK, '드리클로'로 데오드란트 영역 확장

TV 광고, 온·오프라인 마케팅 개시

GSK(대표 김진호)가 다한증 치료제 '드리클로'로 데오드란트 시장으로의 영역 확장을 시도한다.

GSK는 드리클로의 시장 확대를 목표로 배우 하연주(사진)를 모델로 발탁했으며 지난달부터 TV 광고를 시작하는 등 본격적인 홍보·마케팅 활동을 시작한다고 최근 밝혔다.

특히 '하루 한 번으로 땀 걱정 끝, 여름 자신 있어요!'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광고는 여름철 땀으로 고민하는 소비자들을 주 타깃으로 하고 있다.

또 회사는 땀 냄새만 억제하는 기존 데오드란트 제품과 달리 드리클로가 땀 분비 자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정미 GSK 컨슈머마케팅 팀장은 "TV 광고를 처음 시작한 만큼 더 많은 소비자에게 땀 걱정 없는 여름을 보내는 방법을 알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패션업계 '선행' 릴레이 화제

홀몸 어르신 대상 냉방기·속옷 전달 잇따라

패션업체들이 여름철을 맞아 더위에 취약한 환경에 놓여있는 독거노인들에게 선풍기·속옷 등 용품을 지원하며 '선행' 릴레이에 나섰다.

속옷전문기업 좋은사람들은 최근 보건복지부와 '독거노인 사랑잇기사업'에 관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좋은사람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일깨우는데 더욱 앞장선다는 목표다. 속옷 및 물품 후원을 비롯해 자원봉사자들과 도움이 필요한 독거노인 세대를 방문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전 강화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SPA 브랜드 유니클로는 보건복지부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가 진행하는 '2014 폭염 대비 취약 독거노인 지원-착한 바람 캠페인'에 동참한다.

이번 캠페인은 냉방비가 없는 독거노인들에게 시원한 여름을 선물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유니클로는 8월까지 전국의 홀몸 어르신들을 직접 방문해 선풍기 등의 냉방용품과 유니클로 '에어리즘', 여름철 보양식 등이 담긴 선물 세트를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 27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좋은사람들 윤우환 대표(오른쪽)와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독거노인 사랑잇기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좋은사람들 제공

좋은사람들의 윤우환 대표는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은 물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마련해 전 임직원이 적극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기자 pjw@

장마용품 '안전·경량'이 대세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안전에 대한 관심이 특히 높아진 가운데 장마용품에도 '안전'과 '경량'이라는 트렌드를 반영한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투명 우산'의 지난 24일까지 현재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0% 늘어났다. '아동용 투명 우산'이 53.0% 신장해 전체 '투명 우산' 매출 신장세를 견인했다.

이런 판매량은 지난해 대비 강수량이 35% 가량 적어 전체 우산 매출이 26.0%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높은 수치라는 것이 마트 측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피부 쓸림 상처를 방지하는 '안전형 장화'도 인기를 끌어 현재까지 51.7% 가량 매출이 증가했다.

특히 올해 우리나라는 기후 변화로 인해 아열대 특유의 스콜성 장마, 국지성 호우 등이 잦아 지면서 소지가 편리한 경량 제품의 판매도 늘었다.

롯데마트가 6월 선보인 기존 제품 대비 무게를 절반으로 줄인 '초경량 3단 우산'의 경우 전체 3단 우산의 매출 가운데 19.2%를 차지했다. 장화도 기존 '고무 장화'보다 30% 정도 가벼운 평균 210g의 'PVC 장화'가 선호되고 있는 추세로 올해 들어 현재까지 PVC 장화의 매출 비중은 전체 장화 매출 중 64.8%에 달하고 있다. /정영일기자

포카리스웨트, '2014 블루로드 캠페인' 접수

동아오츠카(대표 이원희)의 포카리스웨트는 8월 31일 열릴 도심 속 자전거 퍼레이드 '2014 블루로드 캠페인'에 참여할 참가자 모집을 30일 온라인 접수로 시작한다고 이날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 캠페인은 자전거 생활화를 권장하는 자전거 마라톤 행사다.

접수 방법은 블루로드캠페인 공식홈페이지(http://www.blueroadcampaign.com)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선착순 2500명으로 마감된다.

참가비는 2만원이며 참가자에게는 블루로드 티셔츠, 라이딩 힙색, 스포츠타올 등 기념품이 증정된다. /김학철기자 kimc0604@

영양까지 챙긴 '초콜릿·시리얼바' 열전

1인가구 증가·아웃도어 열풍에 간편식으로 인기

1인가구 증가와 본격적으로 찾아 온 아웃도어 계절을 맞아 식품업계가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초콜릿바를 잇따라 출시하면서 소리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시장조사 기관 닐슨이 조사한 지난 2년간 초콜릿 형태별 판매율을 살펴보면, 6~7월에 초콜릿바의 매출은 월별 초콜릿 전체 매출의 약 35%로 판형이나 쉘 형태의 제품 매출에 비해 가장 높았다. 특히 올해 출시된 제품들은 먹거리의 품질과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반영해 다양한 혼합물을 이용하거나 구성물을 한 단계 발전시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초콜릿바는 다이어트 식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먼저 글로벌 업체인 허쉬코리아가 지난 3월 선보인 '리세스 넛 바'는 땅콩을 통째로 넣어 식감을 살리면서도 함량까지 높여 영양을 한층 강화했다. 이 제품은 미국 시장에서 브랜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리세스 제품 중 국내에서 처음 선보이는 초콜릿바로 부드러운 허쉬초콜릿과 통땅콩의 진한 맛이 강렬한 여운을 남긴다. 갓 로스팅한 통땅콩이 26%로 풍부하게 함유돼 식감뿐만 아니라 영양까지 강화했다. 첨가된 피넛 버터는 통땅콩의 고소한 맛을 배가시키면서도 허쉬 초콜릿의 달콤한 풍미와 어울려 특별한 맛을 선사한다.

오곡 시리얼을 넣어 기존의 초콜릿바의 형태를 탈피한 신제품도 등장했다.

오리온에서 4월 2일 출시한 '핫브레이크 크리스피 바'는 전통 초콜릿바와 영양바의 형태를 조화시켰다. 밀·옥수수·호밀·현미·귀리와 땅콩으로 채워 건강까지 챙겼다. 또 재료 그대로 초콜릿과 버무려 바삭한 식감을 극대화했다. 영양바와 초콜릿바의 장점만을 적용해 맛과 건강을 동시에 살린 제품이다. 쫄깃한 누가와 고소하고 영양가 높은 아몬드와 땅콩을 함께 넣어 1985년 처음 된 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핫브레이크'를 리뉴얼한 것이다.

국내산 재료를 엄선해 새로운 맛을 선보인 제품도 인기다.

크라운제과가 지난 5월 20일 선보인 '키커바 시리얼 현미'는 100% 국산 현미를 사용한 프리미엄 초콜릿바다. 초콜릿 사이에 현미를 혼합해 맛과 영양까지 갖췄다. 그동안 현미는 영양소가 풍부한 웰빙식품이지만 식감이 거칠어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 제품은 크라운제과의 퍼핑기술을 활용해 거칠고 단단한 현미를 한 번 쪄낸 후에 튀겨내어 바삭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을 더욱 살렸다는 것이다.

롯데헬스원은 지난 26일 식사대용 시리얼바인 '그릭요거트 그래놀라'를 내놨다. 기존의 요거트와는 달리 유청(우유단백질)으로 발효시키는 그릭요거트는 단백질 함유량이 기존 요거트에 비해 2배 이상 높고, 칼슘·비타민·미네랄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요거트를 뜻한다. 이 제품은 이름에 걸맞게 귀리·쌀·찹쌀·보리·현미·콩 등 여섯 가지 곡물과 딸기·크랜베리 등을 그릭요거트로 버무려 우유 없이도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시리얼바이다. /정영일기자 prms@metroseoul.co.kr

강강술래, '응원피로 극복 알뜰외식 이벤트'

상계·시흥·늘봄점 '먹은 양만큼 무료포장'
쇼핑몰에서 피크닉푸드박스 등 최대 40%↓
뮤지컬 '담배가게 아가씨' 티켓증정 행사도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무더위와 응원에 지친 고객들의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 7월 한 달간 알뜰 외식 이벤트를 벌인다.

상계점은 이달 10일까지 술래양념·왕양념갈비 메뉴를 시키면 한우불고기를, 한돈·돼지양념구이를 시키면 돼지양념 제품을 주문한 양만큼 무료 포장해 준다.

늘봄농원점도 같은 기간 술래·강강양념, 왕양념갈비, 한우스페셜, 한우모둠구이를 시키면 한우불고기를, 한돈·돼지양념구이를 시키면 돼지양념 제품을 먹은 양만큼 포장해 준다.

시흥점은 이달 11일까지 주중에 매장에서 돼지양념구이를 주문한 양만큼 나갈 때 동일 메뉴를 무료 포장해준다. 신림점도 이달 4일까지 매장에서 술래양념구이를 2인분 시키면 1인분을 추가로 더 준다. (매장 진행 행사의 경우 해피아워 및 정식류 제외)

이달 말까지 쇼핑몰(sullaimal1.com)과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선 피크닉박스 세트(강강양념520g+돼지양념500g+한돈양념500g+한우불고기500g)를 40% 할인된 6만원에 판매한다.

한편 홈페이지 문화이벤트에 7월 31일까지 신청글을 남기면 창작뮤지컬 '담배가게 아가씨' 티켓도 추첨을 통해 증정한다. 익숙한 가사와 멜로디의 송창식의 담배가게 아가씨를 모티브로 해서 7080 세대에겐 향수를, 현재 세대에게는 다양한 볼거리와 익숙한 노래로 뮤지컬 음악의 진수를 보여준다. /정영일 기자

비핸즈카드 제공 (제품번호:BH2137)

결혼 미루는 자녀 때문에…올해도 ‘축의금 품앗이’만 하다 끝?

주변 결혼식은 늘어나고, 결혼 적령기 자녀는 느긋하고 속 타는 부모들 결혼 상담 부쩍늘어

서울 서초구에 거주 중인 김상중씨(60세)는 요즘 걱정이 많다. 부쩍 많아진 결혼식에 축의금 지출은 늘어가는데, 정작 딸의 결혼 소식은 잠잠하기 때문. “3년 새 주변에 결혼식이 크게 늘었어요. 정작 우리 애는 느긋하고… 걱정이 크죠.”

정선화씨(58세·강남구)도 아들의 혼사에 마음이 쓰인다고 말한다. “싹싹한 며느리, 예쁜 손주 둔 친구들 볼 때마다 참 부럽죠. 올해도 봉투만 보내다가 지나버리면 어쩌나 싶고…”

여전히 미혼으로 남은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걱정스럽기만 하다. 소위 ‘축의금 품앗이’ 문화로 인해 부모들은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라도 주변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을 의무처럼 여기곤 한다. 하지만 초혼 연령이 높아 지고 자녀의 결혼이 늦어지면서 ‘올해도 축의금만 내다 끝나는 건 아닐까’ 하며 걱정하는 부모들이 많다.

가연결혼정보㈜의 박미숙 이사는 최근 결혼적령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결혼 상담 문의가 부쩍 늘었다고 말한다. “올해 들어, 자녀분들이 어서 짝을 찾길 바라는 부모님들의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자녀가 좋은 짝을 만나 안정된 모습을 보고 싶은 부모들은 ‘주변에 괜찮은 사람이 없다’며 결혼을 미루는 자녀를 위한 해결책으로 결혼정보회사를 찾고 있다.

박경원씨(65세·송파구)는 작년 초, 딸(28세)의 결혼 상담을 위해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다. 아버지 만큼이나 남편에 대한 기대가 컸던 딸은 결혼정보회사에 적극적이 었다고 한다. 그 결과 딸이 원하는 이성상과 부모가 원하는 조건을 갖춘 사윗감을 만나 지난 2월 결혼식을 올렸다.

박씨는 “딸 가진 부모 마음 다 똑같다.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았으면 했다.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던 이유도, 원하는 사윗감에 대해 솔직하게 터놓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에서였다. 지금은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사위를 뒀다”며 웃었다.

가연결혼정보
〈문의 : 080-586-5000〉

가연결혼정보의 특별한 한정혜택!

10% 할인, 12개월 무이자 할부 이벤트 등 선보여…

공기업 연구원 정성호씨(31세)는 최근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다.

누구의 권유나 추천도 아닌, 본인의 결정이었다. “바쁘게 살다보니 해가 바뀌고 계절도 바뀌었더라고요. 올해 안에 저도 제 짝과 함께하고 싶어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습니다. 급하다고 아무나 만날 순 없고, 제가 원하는 상대를 찾고 싶었어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배우자를 찾는 미혼남녀들이 늘고 있다.

행복한 결혼은 사랑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건들이 충족될 때 가능하다는 믿음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좋은 결혼정보회사 찾는 법, 따로 있다

이맘때면 하루빨리 짝을 찾고 싶은 마음에 결혼정보회사를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조급함만 앞서 아무 회사나 선택 하는 것은 금물,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자.

〈결혼정보회사 가입 시 확인할 것〉

공정위 표준약관 100% 준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준수 여부
회사의 규모와 공신력
서비스 품질, 사후 관리, 전문성 갖춘 인력, 시설 등
철저한 회원 신원인증
미혼, 학력, 재직 등 엄격한 회원 신원인증 절차
개인정보 보안·관리
회원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안 및 관리
회원 매칭 시스템
전문적인 커플·매칭매니저에 의한 세심한 관리

결혼정보분야 3년 연속 1위 기업

꾸준히 신뢰받는 이유는

가연은 결혼정보분야에서 3년 연속 1위(2011,2012,2013랭키닷컴 기준)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 대상’ 및 ‘대한민국 중소·중견기업 혁신대상’ 3년 연속 수상,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2년 연속 수상, ‘2014 국가브랜드대상’ 등 각종 상을 수상하며 높은 고객 만족도를 입증했다.

이렇듯 높은 고객만족도를 자랑하게 된 중심에는 가연이 개발한 독자적인 매칭서비스가 있다. 1차원적인 매칭에 의존했던 업계에서 꾸준히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고, 가연만의 매칭시스템인 GMS(Gayeon Matching System)를 기반으로 커플/매칭매니저 2명이 1명의 회원을 전담으로 관리하는 성혼 컨설팅 시스템을 마련하면서, ISO9001, INNOBIZ, 벤처기업 인증 등을 통해 그 우수함을 인정받기도 했다.

*랭키닷컴-랭키순위란? 최근 12주간 랭키툴바 6만명 패널의 인터넷 사용정보를 자료로 User Session Visits 기준으로 집계한 순위입니다.

가연결혼정보
〈문의 : 080-586-5000〉

“행복한 결혼을 위한 기준은 다 다르니까, 등급은 필요 없죠”

결혼정보회사는 직업이나 경제적 능력만으로 ‘평가’하고, ‘등급’을 매길 것이라는 편견이 있다. 그러나 가연결혼정보㈜ 조인상 커플매니저는 ‘오직 인연을 찾아 드릴 뿐, 등급은 없다’고 말한다.

◇ 결혼정보회사에 ‘등급은 없다’고 하셨는데, 정말인가요?

결혼정보회사에서 등급을 나눌 거라는 선입관을 가진 분들이 계시지만 저희 가연에서는 등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등급 개념 자체가 불필요해요. 저희는 고객이 원하는 배우자 상대를 찾아 드릴 뿐, 등급에 따라 매칭하는 곳이 아니니까요.

◇ 등급은 없더라도 조건은 여전히 중요하지 않나요?

조건이 중요한 이유는 결혼정보회사를 찾아오시는 분들마다 배우자에 대해 바라는 조건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고객이 원하는 이상형에 가장 가까운 배우자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상담 시 다양한 이상형 조건들을 수집하죠. 어떤 분은 배우자가 ‘공무원’이길 바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같은 종교’이길 바랄 수도 있는 것처럼 누구나 바라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와 가장 가까운 배우자를 찾아드리기 위해 배우자 조건에 대한 상담은 필수 과정인 거죠.

가연결혼정보㈜ 조인상 팀장

◇ 결혼을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께 조언을 드린다면?

적극적인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평생 함께할 사람을 찾는 일인 만큼 의지를 갖고 노력하셔야 하죠. 결혼정보회사의 성혼 프로그램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경험해은 바로는 적극적인 분들일수록 매칭 성공률도 높더라고요. 기회는 노력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 무료상담전화
080-586-5000

아날로그 감성 '레트로' 콘셉트 제품 인기

향수 자극하고 심리적 위안 제공

지난해부터 시작된 복고 바람으로 90년대 향수를 자극하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고 8,90년대 가수들이 활동을 재개하면서 그 시절 노래들이 재조명 받고 있다.

가전·패션·뷰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레트로 콘셉트의 제품들을 꾸준히 출시하고 있다. 복고, 즉 레트로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들은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아날로그적 감성을 자극해 인간의 향수를 일깨우고 심리적 위안을 제공해 인기를 끌고 있는 것.

◆인테리어 아이템으로 손색 없어

가전제품의 경우 레트로 콘셉트와 컬러를 접목시킨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보다 아늑하고 감각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 인테리어 아이템으로 주목 받고 있다.

이탈리아 가전 브랜드 드롱기의 '아이코나 빈티지 컬렉션'은 아날로그적 감성을 현대적으로 접목한 디자인으로 최근 감각을 중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다. 에스프레소 커피 메이커, 주전자, 토스터기로 구성돼 있으며 스카이블루·올리브그린·파스텔크림·벨벳블랙 등 4종의 컬러가 빈티지한 느낌을 준다.

이탈리아 주방기기 전문 브랜드 스메그의 인기 아이템인 컬러냉장고는 일반 냉장고와는 다르게 모서리를 원형으로 처리하고 클래식한 손잡이와 로고가 어우러진 50년대 레트로 스타일을 구현했다. 또 파스텔톤부터 톡톡 튀는 컬러들까지 다양한 색상이 더해져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각광받고 있다.

◆패션·뷰티업계, 레트로 스타일 선봬

패션 브랜드는 브랜드의 가치와 역사를 알리기 위한 '헤리티지(Heritage)' 마케팅을 통해 타 브랜드와 차별화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세정은 남성복 브랜드 인디안 40주년을 기념해 인디안의 역사와 정신을 반영한 '웰메이드 아카이브'를 론칭했다. 이 브랜드는 지난 40년간의 인디안의 장인정신과 역사를 지켜 나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첫 시즌 상품은 시대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남성 티셔츠의 패턴과 소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여름 티셔츠 30종으로 구성돼 있다.

스포츠 브랜드 써코니는 80년대의 감성을 담은 운동화 '써코니 트레이너 80' 2종을 선보였다. 이 제품은 미드솔과 인솔의 높이를 낮추고 나일론과 스웨이드 소재를 접목시킨 디자인과 함께 운동화의 혀 부분에도 클래식한 폰트와 로고를 사용해 80년대 트레이너 슈즈의 실루엣을 그대로 살렸다.

뷰티 브랜드도 레트로 메이크업 룩을 재현했다. 메리케이가 제안한 2014년 봄·여름 메이크업 '헬로, 선샤인!'은 해변이나 야외로 놀러 가는 60~70년대 여성들의 빈티지 메이크업 룩을 재해석한 것으로 최소한의 메이크업만으로 자연스러우면서도 경쾌하고 발랄한 분위기를 표현한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metroseoul.co.kr

드롱기 아이코나 빈티지 컬렉션. /드롱기그룹 제공

올 여름 백 트렌드는 '미니와 컬러'

직장인이라면 큰 백에 포인트

제법 옷차림이 가벼워진 요즘, 가방으로 포인트를 더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미니백과 두가지 색상이 배색된 백이 눈에 띈다.

지갑·파우치·다이어리 등 다양한 아이템들을 소지하고 다니던 과거와 달리 스마트폰 하나로 다양한 업무가 가능해지면서 여자들의 가방도 가벼워지고 있다.

올 여름 미니백은 로맨틱 룩, 캐주얼룩, 오피스룩 등 모든 스타일에 어울리는 대세 아이템으로 자리잡았다. 크기는 작지만 가방 곳곳에 수납 공간을 만들어 갖가지 필수 아이템을 넣을 수 있고 여름철 부담 없이 들고 다니기에 좋아 여성들에게 인기다.

스트랩을 탈부착 할 수 있는 미니백이라면 상황에 따라 크로스백부터 클러치백까지 변형이 가능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가방은 전체적인 옷차림의 분위기를 결정짓는 포인트 역할을 한다. 특히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미니백도 좋지만 큰 사이즈의 토트백이나 숄더백이 더욱 실용적이다. 단 스타일에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는 단색보다는 두 가지 이상의 색상이 배색된 백을 추천한다.

이런 스타일의 백은 캐주얼 및 정장을 착용할 때도 매치하기 편하며 독특한 색상의 배색은 멋스러움을 가미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김학철기자

선글라스 선택… 男 '스타일', 女 '피부톤'

캐주얼·정장·스포츠룩 따라 다르게
어두운 톤의 피부엔 레오파드가 제격

자외선을 막고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선글라스는 여름 필수 아이템이다. 남성들은 자신의 옷차림에 따라 선글라스를 선택하고 여성들은 자신의 피부톤에 맞는 색상의 선글라스를 고른다면 여름철 스타일 완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캐주얼한 의상을 즐겨 입는 남성들은 깔끔한 스퀘어 선글라스가 제격이다. 사각 디자인의 브라운 색상 선글라스는 현대적이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내며 금빛의 메탈 디테일이 더해진다면 고급스러운 느낌도 연출할 수 있다.

두께감이 있는 프레임의 블랙 선글라스는 남자다운 분위기를 좀 더 가미해 셔츠 또는 니트와 함께 매치하면 잘 어울린다.

격식을 차린 비즈니스룩을 자주 입는 남성들은 수트와 어울리는 선글라스를 착용해야 하는 것이 좋다. 골드 메탈이 안경 다리에 가미된 보잉 선글라스는 비즈니스맨의 카리스마를 부각시켜주는 아이템이다.

좀 더 독특한 스타일을 추구하는 남성은 오피스룩에 반무테 선글라스를 착용해 자신만의 스타일을 살릴 수 있다. 특히 레오파드 패턴이 더해진 반무테 선글라스는 렌즈에 은은한 그라데이션까지 들어가 트렌디한 직장인임을 각인시키는 데 안성맞춤이다.

스포츠를 좋아하고 아웃도어 활동을 선호하는 남성들은 꽈프로 렌즈가 더해진 선글라스로 빛을 차단하는 것이 좋다. 이와 함께 튼튼한 소재와 커브핏을 적용한 제품을 골라 착용이 편한 선글라스를 고르는 게 핵심이다.

여성의 경우 자신의 피부 톤을 고려해 제품을 선택한다면 여름철 더욱 화사하고 예쁜 얼굴을 뽐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강렬한 레드 색상은 새하얀 피부를 더욱 환하고 생기 있게 만들어주며 도시적인 이미지 연출에 도움이 된다.

밝고 환한 피부에 오렌지 색상의 선글라스를 매치하면 발랄한 분위기를 한 층 더 강조할 수 있다. 밝은 오렌지 계열의 선글라스 역시 얼굴을 더욱 환하게 만들어주며 개성있는 스타일 연출을 완성시킨다.

구릿빛 피부로 건강한 매력을 뽐내는 여성이라면 피부 색과 비슷한 어두운 톤의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이 무난하다. 특히 까무잡잡한 피부의 사람들은 레오파드가 가미된 선글라스가 제격이다.

어두운 브라운 색상의 표범무늬가 가미된 오버사이즈 선글라스는 고급스러우면서도 조화롭고 절제된 분위기를 극대화시킨다. 여기에 골드 메탈 장식이 가미된 제품은 어두운 피부와 잘 어울린다. /김학철기자 kimc0604@

"나이스 바디 한가요?"

가수로서 음악적 역량 검증받고 싶어
도전에 대한 두려움 떨쳐내는게 우선 "

데뷔 첫 솔로 활동 나선 **효민**

걸그룹 티아라의 효민이 '나이스 바디'를 공개하고 첫 솔로 활동에 나섰다. 지연에 이어 두 번째 주자로 나선 것.

효민의 이번 솔로 활동은 의미가 남다르다. 단순히 노래 잘하는 가수가 아닌 자작곡으로 음악적 역량을 검증받겠다는 각오다. 또 외적으로도 새로운 변화를 줬다. 모든 열정을 쏟아부은 모습이 역력했다. 효민은 인터뷰를 앞두고 긴장했다.

◆첫 솔로 활동 기대된다.

인터뷰 앞두고 청심환도 먹고 왔는데 많이 떨린다. 처음 '나이스 바디'를 받았을때 제목부터 노래와 안무에 대한 부담감이 컸던 건 사실이다. 그런데 식단과 다이어트에 대한 걱정도 생겼다. 크로스핏과 레몬 디톡스를 하면서 탄탄한 몸매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다이어트가 힘들지 않았나.

티아라 활동 공백기가 6개월 가량 되면서 4kg 정도 늘었다. 이번에는 운동과 식단조절로 작심하고 다이어트를 했다. 처음 일주일은 근육통 때문에 앓아 누울 정도로 힘들었는데 두 달 정도 하니 근육이 많이 생겼다. 활동을 열흘 정도 앞둔 시점부터는 레몬 디톡스와 식단조절을 했다. 결과는 3.5kg감량 성공이다. '나이스 바디'를 표현하기 위해 많은 것을 준비했다.

◆솔로 무대에 대한 부담감은 없나.

솔직히 부담감이 없으면 거짓말이다. 처음엔 걱정됐지만 열심히 준비한 만큼 이제는 기다려진다. 홀로 무대를 채워야 하는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소품을 활용한 퍼포먼스를 준비했다. 뮤직비디오에서 볼 수 있었던 줄자나 계단, 스텝바 등이다. 멤버들과 함께 했던 무대가 비어보이지 않을까 욕심을 낸 것이다. 계단 안무는 주변에서 이름을 지어줬고, '애플힙 댄스'라는 힙을 강조한 안무도 있다.

◆지연·효민 모두 섹시콘셉트인가.

여자 가수이기 때문에 섹시 콘셉트는 둘다 기본적인 베이스로 두고 시작했다. 여자 가수이기도 하고 무대 표현에서 있어서 섹시가 필요했다. 그러나 차별점도 있다. 지연은 팀 막내라는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에 성숙한 여성의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다.

반면 나는 건강하고 밝은 귀여운 섹시미를 보여줄 것이다. 뮤직비디오 티저나 사진이 자극적으로 나갔지만 무대에서는 건강하고 밝은 귀여운 섹시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첫 솔로 앨범에 자작곡인 '담'이 실렸다.

나의 첫 자작곡이다. 내가 해도 될까 장난 반, 진담 반으로 시작했는데 하다보니까 욕심이 더 생겼다. 가사 하나 하나에 의미가 있다.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듣고 힘든 일을 이겨내고 힘을 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또 나에게도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번 앨범의 다른 곡들과는 차별화된 느낌의 곡인데 나만의 색다른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었다.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참고한 선배 가수가 있다면.

가장 닮고 싶은 가수는 이효리 선배다. 무대에서 느껴지는 자신감과 매번 새로운 콘셉트로 앨범을 내놓는 모습 등 다양하다. 그래서 앨범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봤던 자료가 이효리 선배 무대 영상이다. 그리고 과감하게 머리도 잘라보고 염색도 밝은 색으로 탈색을 해봤는데 아직 자신감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긴 하다. 솔로 활동을 하면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은 가수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사진/손진영기자·디자인/최송이

정인, 개리 이어 박재범 입맞춤

'고교처세왕' OST '살다가 보면' 발표

가수 정인이 '살다가 보면'으로 '사람냄새'에 이어 다시 한번 음원차트 정상을 노린다.

CJ E&M은 tvN 월화드라마 '고교처세왕'의 두 번째 OST인 정인의 '살다가 보면'을 30일 정오 온라인 음원 사이트에 공개했다. 앞서 정인은 리쌍의 개리와 함께 지난 5월 말 발매한 '사람냄새'로 온라인 음원차트를 석권한데 이어 '살다가 보면'으로 소울 보컬리스트의 면모를 보여줄 예정이다.

'살다가 보면'은 힙합·R&B 레이블 AOMG의 그레이와 박재범이 작사·작곡·편곡과 프로듀싱에 참여한 어쿠스틱 R&B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문득 삶이 고단하게 느껴지지만 살다가 보면 상처도 추억이 되고 다 괜찮아 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정인의 독특하면서도 소울풀한 목소리가 어우러진 '살다가 보면'은 음원 공개에 앞서 지난 17일 '고교처세왕' 2회에서 정수영(이하나)과 이민석(서인국)의 퇴근길 버스 장면에서 처음 등장했다.

관계자는 "정수영과 이민석의 피곤한 마음을 어루만지는 듯한 곡으로 이날 방송 직후 노래에 대한 팬들의 문의와 OST 출시 요청이 쏟아졌다"며 정인의 노래에 대한 뜨거운 반응을 전했다. /김지민기자 langkim@

정인 박재범

박유천 일본팬 도시락 기부

자선경매 수익금 저소득 가정에 전달

JYJ 박유천의 일본 팬들이 박유천의 생일을 맞아 660만원 상당의 도시락 2222개를 기부했다.

30일 국제구호개발기구 월드비전에 따르면 일본 팬클럽 '유천이즘(6002ism)'은 지난 4일 생일을 맞은 박유천을 위해 일본에서 생일 파티·자선 경매 행사인 '해피 6002 데이'를 진행했다.

박유천은 자신의 애장품을 기증했고, 팬들은 좋은 일에 쓰일 수 있도록 자발적인 경매를 해 총 666만 7240원을 모았다. 후원금 전액은 박유천의 이름으로 월드비전 국내 저소득 가정을 위한 '사랑의 도시락' 사업에 쓰여질 예정이다.

월드비전 양호승 회장은 "월드비전을 통해 꾸준히 나눔을 전하는 박유천처럼 팬들도 나눔 행렬에 동참해 감사하다"며 "방학을 하면 하루 한 끼의 식사도 어려운 국내 결식 아이들에게 팬들의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유천은 앞서 JYJ의 다른 멤버(김재중·김준수)와 함께 쇼케이스 수익금 3000만원으로 공고 초등학교 위생보건사업을 후원했고, 2011년에는 일본지진과 태국수해 복구 돕기에 8억여원을 후원했다. 팬들과 함께 남수단 망고나무심기 캠페인으로 2200만원을 후원하기도 했다.

한편 박유천은 8월 13일 개봉될 영화 '해무'에 출연했다. /탁진현기자 tak0427@

생일 파티와 자선 경매 행사에 참석한 박유천. /씨제스엔터테인먼트

한여름밤 황제의 라이브

이승철 18~19일 '나이야~가라!' 공연… 전 연령 아우를 무대

이승철의 환상 라이브가 한여름밤 야외 무대에서 펼쳐진다.

이승철은 7월 18~19일 용산전쟁기념관 평화의광장에서 '썸머 콘서트-나이야~가라!'를 연다. 이승철의 소속사 진엔원뮤직웍스는 "지난해 데뷔 이래 최초로 개최한 여름 콘서트 당시 폭우에도 열광적으로 호응해 준 관객에게 보답하기 위해 기획했다"고 밝혔다.

엠넷 '슈퍼스타K' 심사위원으로 전 연령대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는 이승철은 '나이야가라'라는 공연 이름처럼 10대부터 70대까지 관객층을 확대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연을 준비했다.

이승철은 "예년보다 조금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지친 관객들이 폭포처럼 쏟아지는 시원한 물대포를 맞으며 나이를 불문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시원한 바캉스 같은 공연으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승철은 수많은 공연을 소화하며 노하우를 쌓은 라이브의 황제답게 다양한 예매 이벤트도 준비했다. '슈퍼스타K 4'에서 인기를 모은 유행어에서 착안한 '어서와석' 할인과 브라질 월드컵을 기념해 예매처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한 '나이야가라' 공연 포스터 인증샷 이벤트 등을 마련했다.

이날 무대에서는 이승철이 최근 발표한 SBS 수목드라마 '너희들은 포위됐다'의 OST인 '사랑하나봐'도 라이브로 감상할 수 있다.

'나이야~가라!' 공연은 서울에 앞서 7월 5일 울산 체육공원 호반광장에서 막이 오르며 이후 수원, 부산, 순천 등에서도 열린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단발머리' 한중일서 동시 인기

AOA 대세 걸그룹 굳히기

걸그룹 AOA(사진)의 '단발머리'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뜨겁다.

AOA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단발머리'는 중국 최대 음악 웹사이트 인위에타이의 한국 V차트 주간순위(6월 23~29일) 2위에 올랐다. 텐센트·소후·시나·163 등 중국 4대 포털 사이트는 AOA의 소식을 메인으로 다뤘다. '단발머리'는 중국뿐 아니라 일본 타워레코드 월드차트 일간 순위 3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단발머리'가 관심을 모으면서 1월 발표한 '짧은 치마'가 뒤늦게 다시 인기를 얻는 이례적인 현상도 벌어졌다. AOA는 '짧은 치마'로 활동할 당시 데뷔 후 처음으로 음악순위 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했고, 중국 최대 음원사이트 KUWO 한일차트 정상에 오른 바 있다. 최근 들어 다시 한번 차트 순위가 급상승하고 있다. /유순호기자

비스트 8월 단독콘서트

그룹 비스트가 8월 15~16일 일산 킨텍스에서 단독 콘서트 '뷰티풀 쇼 2014'를 개최한다.

지난해 7월 2만여 명 규모로 '뷰티풀 쇼 2013'을 연 이들은 1년여 만에 다시 콘서트로 만난다. 2010년 첫 단독 콘서트 이후 해마다 다른 콘셉트로 공연하며 막강한 티켓 파워를 자랑했다. 다양한 장르의 레퍼토리와 화려한 무대 연출로 화제를 모았다.

새 앨범 타이틀곡 '굿럭'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스트는 지난주 음악 순위 프로그램에서 4일 연속 1위 트로피를 받으며 절정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 /유순호기자

채림·가오쯔치. /가오쯔치 웨이보 제공

채림 공개 프러포즈 받아

배우 채림이 예비 남편 가오쯔치에게 공개 프러포즈를 받았다.

지난 29일 오후 5시 중국 베이징 번화가인 싼리툰에선 수많은 현지 취재진이 모였다. 가오쯔치와 채림의 공개 청혼 현장을 포착하기 위해서다. 친구인 황잉, 인시수이 등 중국 연예인이 도움을 줬다.

빨간 장미 꽃다발을 준비한 가오쯔치는 채림에게 신승훈의 '아이 빌리브'를 한국어로 불렀다. 무릎을 꿇고 꽃다발과 반지를 전하며 청혼했다. 이에 채림은 미소와 포옹, 키스로 화답했다.

채림과 가오쯔치는 지난해 중국 CCTV 드라마 '이씨가문'에서 부부로 호흡을 맞춘 뒤 연인으로 발전했다. 지난달 중국 토크쇼 '대패가도'에 동반 출연했고 최근 새 드라마 '시아전기'에서 또 한번 호흡을 맞추고 있다.

두 사람은 오는 10월 결혼 예정이다. /전효진기자

정은지·박세영 아빠가 같은 사람?

중견배우 강남길·정동환·김상호 겹치기 출연 눈길

중견 배우의 겹치기 출연이 눈에 띈다. 이 같은 출연 방식은 과거부터 논란이 되고 있다. 미니시리즈나 일일극에서 중견배우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그렇다 보니 연달아 편성된 드라마 혹은 동시간대 경쟁작에서 연기하는 경우가 있다. 혼선을 빚고 다양성을 헤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출연 권리는 배우에게 있으며 성격이 다른 캐릭터를 연기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배우 강남길·김상호·정동환이 두 개 이상 드라마에서 활약 중이다.

강남길은 아빠 역할로 세 개 작품에 출연했다. 지난 21일 종영한 tvN 금토극 '갑동이'에선 오마리아(김민정)의 아빠이자 연쇄 살인범 용의자 중 한명인 한상훈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KBS2 월화극 '트로트의 연인'과 SBS 주말극 '기분 좋은 날'에선 무능력한 아빠로 등장한다. '트로트의 연인'에선 최춘희(정은지)의 아빠 최명식 역을 맡아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편의점을 운영하며 홀로 두 딸을 키우던 그는 빚에 떠밀려 현재 행방불명이다. '기분 좋은 날'에서는 전부인 한송정(김미숙)에게 돈을 요구하는 정다정(박세영)의 무능력한 아빠로 출연한다. 뻔뻔한 캐릭터를 소화하며 시청자의 미움을 받고 있다.

SBS 주말극 '기분 좋은 날' 강남길. /로고스필름 제공

SBS 주말극 '끝없는 사랑' 정동환. /SBS 제공

KBS2 주말극 '참 좋은 시절' 김상호. /KBS 제공

정동환은 권력가로 두 개 작품에 등장한다. SBS 주말극 '끝없는 사랑'에서 맡은 김건표 총리는 여야와 전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 군부 출신으로 점잖고 신사적이다. 차기 대권을 노리는 천태웅 장군(차인표)의 야망과 어떻게 충돌할 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SBS 수목극 '너희들은 포위됐다'에선 경찰청장 출신이자 3선과 당 대표를 노리는 여당 국회의원 유문배 역을 맡았다. 은대구(이승기) 엄마 살인 사건에 깊이 관여한 권력가이며 강석순(서이숙) 강남경찰서장을 뒤에서 지휘한다. 극의 실질적인 악역을 맡고 있다.

김상호는 전혀 다른 캐릭터로 시청자를 만난다. SBS 월화극 '닥터 이방인'에선 돈을 벌기 위해 의사의 양심도 저버리는 양정한으로 출연한다. 40대 초반 흉부외과 무급 펠로우다. 지방대 출신이라는 약점 때문에 실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명우대 병원 내에선 평양 의대 출신인 박훈(이종석)과 다를 바 없는 이방인이다. 그러나 부를 얻기 위해 박훈의 경쟁자인 한재준(박해진)의 사주를 받아 박훈의 수술을 방해한다.

KBS2 주말극 '참 좋은 시절'에선 강동석(이서진)의 쌍둥이 삼촌 중 둘째 강쌍식 역을 맡았다.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으로 극의 감초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22일엔 10년 만난 채소장수 최미숙(윤지숙)에게 투박하지만 진심 담긴 고백을 하며 순수한 매력을 보였다.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오지은 웨딩드레스 자태

배우 오지은(사진)이 MBC 새 일일연속극 '소원을 말해봐'에서 예비신부로 변신했다.

극 중 오지은은 형편이 어려운 집안에서 살아가는 한소원 역을 맡아 평범하고 소탈한 콘셉트의 의상을 주로 입는다. 이에 맞춰 예비신부임에도 웨딩드레스만 입고 귀걸이 같은 액세서리는 배제했다.

웨딩 전문가는 최근 웨딩드레스 트렌드에 대해 "실속 있는 예산으로 여성스러운 느낌을 주는 로맨틱 스타일에 새로운 디테일을 가미한 드레스가 사랑 받고 있다. 섬세한 비즈 장식으로 포인트를 준 차별화된 디테일이 강세다. 레이스 볼레로로 여성스럽고 소녀 같은 느낌을 표현하는가 하면, 러플 장식을 풍성하게 해 따뜻한 느낌을 준다"고 말했다. /양성운기자

클래지콰이 10주년 기념 신곡

3인조 그룹 클래지콰이(사진)가 디지털 싱글을 발표한다.

소속사에 따르면 클래지콰이는 4일 디지털 싱글을 발매한다. 이번 싱글은 데뷔 10주년을 맞아 발매되는 정규 6집에 앞서 미리 선보이는 곡으로 지난해 2월 발표된 5집 이후 1년 반 만에 내놓는 신곡이다.

이들은 8월 말 정규 6집 발매를 앞두고 음반 마무리 작업에 한창이며 데뷔 10주년을 맞아 파티도 계획중이다. 클래지콰이는 지난 21일 열린 사운드홀릭페스티벌2014에 참여해 팬들을 만났으며 내달 26일 열리는 홍성 리듬앤바비큐 페스티벌에도 출연한다.

현재 클래지콰이는 호란의 라디오 DJ 및 예능 프로그램 진행, 알렉스의 드라마 '호텔킹'에 출연, 리더 클래지는 카카오뮤직 스타뮤직룸을 운영하며 팬과 소통하고 있다. /양성운기자 ysw@

갓세븐 10월 일본 전국투어

공연 전부터 인기 몰이

그룹 갓세븐(사진)이 일본에서 정식 데뷔도 하기 전에 전국 투어를 개최한다.

갓세븐은 10월 7~8일 오사카의 제프 남바 공연을 시작으로 후쿠오카(9일), 도쿄(14~15일), 나고야(21~22일)를 거쳐 11월 5~6일 지바의 마쿠하리 멧세 이벤트홀 등에서 총 9회에 걸쳐 콘서트를 연다.

JYP엔터테인먼트는 "갓세븐이 아직 일본에서 공식 데뷔를 하기도 전이지만 일본 모바일 팬클럽 회원을 대상으로 투어 일정을 발표하고 예매를 시작한 건 현지에서의 뜨거운 호응과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라고 전했다.

갓세븐은 JYP엔터테인먼트가 2PM 이후 6년 만에 배출한 남성 그룹으로 1월 1일 데뷔했고, 4월 4일에는 일본 도쿄 료고쿠 국기관에서 첫 번째 일본 쇼케이스를 개최했다. 아직 일본 정식 데뷔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들은 최근 국내에서 두 번째 앨범을 발표하고 타이틀곡 'A'로 활동 중이다. /유순호기자 suno@

이색매력 男 '선택불가'

'복합 감정' 이종석·박해진
'순정 마초' 이승기·차승원
'눈빛 대결' 정경호·류수영

SBS 월화극 '닥터이방인' 이종석·박해진 /SBS 제공

드라마 속 두 남자 주인공을 두고 여심이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전혀 다른 매력으로 극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 과거 특정 남성 캐릭터만 사랑을 독차지하던 경향과 다르다.

SBS 월화극 '닥터 이방인'의 이종석과 박해진은 각각 따뜻한 의사로 성장하는 박훈과 야심 있는 냉혈한 한재준을 연기하고 있다. 두 사람은 복합적인 감정 표현으로 극을 이끈다.

박훈은 첫사랑 송재희(진세연)에겐 순종적이지만 그를 짝사랑하는 오수현(강소라)과는 티격태격하며 조화를 이루고 있다. 수술을 하거나 정치적 음모에 맞설 때에는 빠른 대사 처리와 날카로운 눈빛으로 또 다른 모습을 보인다.

한재준은 신경 곤두 선 눈빛으로 안방을 압도한다는 평이다. 박훈과 대립하는 악역이지만 시청자는 그에게 공감한다.

SBS 수목극 '너희들은 포위됐다'의 이승기와 차승원은 여성에겐 수줍지만 경찰로선 남성적이다. 은대구(이승기)와 어수선(고아라)의 로맨스가 본격적으로 그려지고 서판석(차승원)·김사경(오윤아)은 재혼 조짐을 보이며 작품의 설렘 지수를 높이고 있다.

이승기는 냉철한 인물을 소화하기 위해 눈빛과 말투로 단호함을 표현한다. 차승원은 큰 키를 활용한 액션과 특유의 코믹 연기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정경호와 류수영은 눈빛으로 1970~1980년대 청춘을 대변한다. SBS 주말극 '끝없는 사랑'에서 정경호는 야망 있는 사업가 한광철 역을 맡았다. 그윽한 눈빛으로 수재인 형 한광훈(류수영)과의 애증, 오랜 친구 서인애(황정음)와는 우정과 사랑 사이의 미묘한 감정을 표현한다.

류수영이 맡은 한광훈은 권력을 탐하는 인물이다. 천태웅 장군(차인표)의 딸 천혜진(서효림)이 짝사랑하는 남자이기도 하다.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첫사랑 서인애를 배신할 여지를 두고 있어 향후 캐릭터 변신에 기대가 크다. 류수영 특유의 야생마 같은 눈빛이 그 시대 '별'을 달고 싶은 청춘을 그리며 공감을 얻고 있다.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류승룡 소속사 영화제작 진출

프레인글로벌, 손희창·정지우 감독과 계약

배우 류승룡(사진)의 소속사인 프레인글로벌이 손희창 감독의 영화 '동피랑'으로 한국 영화 제작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동피랑'은 바다와 벽화가 어우러진 통영의 아름다운 마을 동피랑을 배경으로 외로움의 끝에 선 세 남녀의 사랑을 담아낼 예정이다. 다음달 안에 캐스팅을 마치고 곧바로 촬영에 들어간다.

프레인글로벌은 또 '은교'의 정지우 감독과도 손을 잡고 몇 편의 영화를 순차적으로 제작하기로 계약했다. 정 감독은 현재 시나리오 작업 중으로 그가 프레인글로벌과 함께 만드는 첫 작품은 올 해 안에 크랭크인한다.

프레인글로벌은 2011년 류승룡을 주축으로 한 매니지먼트사 설립을 시작으로 지난 3년간 총 20여 편의 영화에 다양한 기능으로 참여했다. '50/50' 등의 외화 수입, '블루 재스민' 등 우디 앨런 감독 작품의 마케팅, 올해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작 '노예 12년'의 투자·배급·마케팅, 한국영화 '표적' 투자를 진행했다. 한국영화아카데미와의 협업을 통해 신인 감독과 배우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프레인글로벌은 "기존 영화사들과는 달리 외부 투자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자금으로 영화 업계 진출 3년 만에 수입-제작-투자-배급-매니지먼트-마케팅을 모두 하는 유일한 회사가 됐다. 참여한 거의 모든 영화에서 수익을 냈다"고 밝혔다.

/탁진현기자 tak0427@

"12년 전 얼굴 그대로"

MBC 새 수목극 '운명처럼 널 사랑해' 제작발표회에서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나라(왼쪽)와 장혁. /손진영기자 son@

장혁·장나라 '운명처럼…'서 재회
원나잇 파격 소재 다시 연기 펼쳐

진부한 신데렐라 스토리도 장혁·장나라가 함께하면 달라진다.

배우 장혁과 장나라가 MBC 새 수목극 '운명처럼 널 사랑해'로 12년 만에 다시 만났다. 이들은 2002년 '명랑소녀 성공기'로 신드롬을 일으켰던 커플이다.

2008년 대만의 인기 드라마 '명중주정아애니'를 원작으로 한 '운명처럼 널 사랑해'는 대영로펌 계약직 서무인 '평범녀' 김미영(장나라)이 우연히 당첨된 마카오 호화 리조트 여행에서 만난 재벌가의 9대 독자 '단명남' 이건(장혁)과의 하룻밤으로 임신하게 된 후의 벌어지는 일을 그린 로맨틱 코미디다.

진부한 신데렐라 스토리라는 지적에 이동윤 PD는 30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얼핏 보면 뻔 할 수 있다. 하지만 '원나잇'을 통해 임신한다는 것은 한국 드라마에선 보기 드문 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PD는 "우리는 쿨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빠져서 임신에 대해 쉽게 말한다. 하지만 사실 그런 일이 막상 자신에게 닥쳤을 땐 잘 대처하지 못하다"며 "두 주인공이 어떻게 상황을 헤쳐 나가고 관계를 이어 나갈지가 우리 드라마의 포인트"라고 덧붙였다.

장혁은 "12년 전 '명랑소녀 성공기'를 마지막으로 로맨틱 코미디를 한 적이 없었다. 오랜만에 만났지만 (장나라의) 얼굴이 거의 바뀌지 않아서 마치 어제 만난 것처럼 편하게 촬영하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처음 시놉시스를 받았을 때 상대역이 장나라란 것을 알고 무조건 하겠다고 했다. 로맨틱 코미디는 상대 배우와의 합이 중요한데 장나라씨와는 잘 맞는다"고 덧붙이며 호흡을 자랑했다.

이에 장나라도 "장혁씨도 그렇고 친구로 등장하는 박희본씨, 다니엘 역의 최진혁씨 모두 인연이 있는 분들"이라며 "특히 장혁씨와 연기할 때 많이 의지가 되고 서로 친해서 편하게 촬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장혁과 장나라의 재회로 화제를 모은 '운명처럼 널 사랑해'는 7월 2일 오후 10시에 첫 방송된다.

/김지민기자

지진희, 대만 미녀스타와 호흡

천이한 출연 중국영화 '두 도시 이야기' 촬영

배우 지진희가 중국 영화 '두 도시 이야기'에 캐스팅돼 촬영에 돌입했다.

지진희의 소속사 HB 엔터테인먼트는 "지진희가 지난 13일 중국에서 열린 제작보고회에 참석했으며 지난 18일부터 부산에서 촬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태균 감독의 '두 도시 이야기'는 한 커플의 결혼을 두고 펼쳐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지진희는 딸의 결혼을 반대하는 인물로 등장하며 영화 '청설'로 유명한 대만의 미녀 스타 천이한과 호흡을 맞춘다.

앞서 지진희는 '여과애' '길 위에서' '적도' 등 굵직한 중국 영화에 출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작품에서도 그만의 연기를 펼칠 예정이다.

한편 '두 도시 이야기'는 오는 11월 중국 개봉을 목표로 촬영 중이다.

/김지민기자 langkim@

지난 13일 중국 영화 '두 도시 이야기' 제작보고회에 참석한 배우 지진희와 천이한.

/HB 엔터테인먼트 제공

공존하는 마음가짐

"아빠, 이 사람은 누구야? 신고포상금이 5억원이나 되네."

"세월호 참사 알지? 그 배 주인이야."

"그래? 5억원이면 너무 적은 거 아냐?"

15살 학생과 그 아버지가 아파트 관리실에서 건조한 목소리로 대화를 주고 받았다.

아들은 세월호 사고의 참상에 대해 사회가 각인시킨 대로 이해했다. 5억원이라는 금액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지만 세월호 관계자라는 것만으로 '되네'를 '적은'으로 바꿨다.

국회의원 연금법 통과와 관련된 메시지가 SNS를 휩쓸고 있다. 내용인 즉, 월 120만원의 연금을 65세부터 종신 때까지 지급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다. 지급액은 시민의 경우 월 30만원씩 30년 동안 납부해야 받을 수 있는 수준이고, 한국전쟁 때 목숨 걸고 싸웠던 군인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이 월 9만원인 점을 비교해 알리는 중이다.

일련의 기업 명단이 퍼졌다. 유니클로, 헬로키티, 아사히, 마일드세븐, 시세이도, 다이소, 세븐일레븐, C&U, 캐논, 닌텐도, 아식스.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는 데 후원을 하는 기업이라며 불매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주장에 지목된 기업이다. 이를 접한 사람들은 매국노가 되지 말자고 외치는 한편 관련 기업의 광고모델을 하고 있는 연예인에 대한 비난도 퍼부었다.

세월호 사고 유족에 대한 보상 문제가 사회 전반에 미묘한 기류를 형성하고 있다. 보상금액의 적정성이 그 출발점이다. 자식을 잃은 부모는 천만금도 소용없다. 천안함 사태로 목숨을 잃은 유공자의 부모도 마찬가지며, 최근 있었던 탈영병 사건에 의한 희생자 부모도 그렇다. 세가지 사건에 대해 보상 논쟁이 불붙었다.

'핀트가 안 맞는다'는 말이 있다. 어떤 상황에 대한 조치 혹은 반응이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는 의미다. 역지사지를 바르게 하면 핀트가 안 맞을 일이 없다. 불행의 실체를 조장하거나 이용하지 말고 받아 들여 공존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이 사회가 사건 사고마다 휘둘려 무너지지 않으려면.

/인터패션플래닝(www.ifp.co.kr) 대표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3	4	1			8
	3	5		7	8			
						7	9	
	7	3	2					
		6				5		
					4	3	6	
	6	1						
			8	5		6	1	
4			1	6	7			

1		2				6	7	
	3	4		9				
6								8
	1		4		7	8		
		9		3		4		
		6	9		5		3	
7								3
				5		7	4	
	4	3				2		6

스도쿠 정답

6	9	7	3	4	1	2	5	8
2	3	5	9	7	8	1	4	6
1	8	4	6	2	5	7	9	3
5	7	3	2	1	6	4	8	9
8	4	6	7	3	9	5	2	1
9	1	2	5	8	4	3	6	7
3	6	1	4	9	2	8	7	5
7	2	9	8	5	3	6	1	4
4	5	8	1	6	7	9	3	2

1	9	2	5	8	3	6	7	4
8	3	4	7	9	6	5	1	2
6	5	7	2	1	4	3	9	8
3	1	5	4	6	7	8	2	9
2	7	9	8	3	1	4	6	5
4	8	6	9	2	5	1	3	7
7	2	1	6	4	8	9	5	3
9	6	8	3	5	2	7	4	1
5	4	3	1	7	9	2	8	6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리미티드'
(마이클 리오스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계약직 계속… 직장 운 알고 싶어요
자신의 장단점 파악, 현 직장도 무난

Q 꿈을 잊지 말자, 여자 88년 4월 20일 음력 새벽 5시 50분

올해 취업이 고민입니다. 88년생 음력 4월20일생 여자입니다. 취직을 하였지만 계약직이라 8월에 계약만료입니다.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다른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전공이 맞지 않아 가야할지 말아야할지 고민입니다. 경력을 쌓기 위해서라면 가야겠지만 저의 길을 가고자 하기 위해서라면 오래 걸리더라도 기다려야 할 텐데요.
8월 후에 직장 운은 어떻게 들어와 있나요. 정규직의 길은 안 보이는가요.

A 자본주의 뿐 아니라 경제논리에서 조직이나 일을 하는 과정에서는 잘하는 그룹이 있고 못하는 그룹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수한 그룹이 잘해도 못하는 그룹으로 인한 전체적인 손실이나 능률이 오르지 못하므로 전체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잘하는 그룹에서 자원을 빼내어 못하는 그룹에 보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관계는 종속적인 개념도 있을 것인데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공정에서도 적용됩니다.

공장전체의 생산능력은 어느 한 시점에서 생산능력이 가장 낮은 공정 즉 병목공정에 의해 결정지어지는 것이기에 이 병목지점을 찾아내서 개선을 하거나 보충 지원해 줌으로서 공정전체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일부분적인 프로세스 개선이 아닌 전체 프로세스의 개선이 관점입니다. 이러한 논리와 이론은 인생이나 경영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경력우대란 즉 경력을 우선시하는 현실에서 시간을 소요해야 나오는 결과입니다. 계약직을 이루어 간다면 한사람 개인이라 할지라도 경영논리에서 과연 경력이라고 인정이 될지가 답은 나와 있다고 볼 것입니다. 자신의 장단점을 찾아내어 장점의 효율성을 높여보시면 어떨지요.

현재운세가 무난하므로 현직 장도 무탈한 곳으로 봅니다. 2014년 양력 10월 쯤 연계된 직장 운이 있으므로 8월 달에 계약직으로 가는 것은 또 다른 방향의 길이 될 수 있으나 새 집단으로 가기보다는 현재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도록 자신을 경영하십시오. 삼형살(三刑殺:흉한액운)의 작용으로 2014년 7-8월 달 교통사고를 조심해야 하니 운전자라면 주의하십시오. 10월에 소지품을 정리한다면 머리도 맑아질 것입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7월 1일 (음 6월 5일) 김희수 인생상담 : 02)577-0541

48년생 무뎌진 감수성은 인정할 것. **60년생** 가정이 화목하니 매사 즐겁다. **72년생** 직장인은 변화를 기회로 바꿔보자. **84년생** 극약처방은 후유증이 남는다.

49년생 부부가 한마음이라 행복하다. **61년생** 배우자가 좋다고 느낄 때까지 행동으로 보여주라. **73년생** 작은 고민이 생긴다. **85년생** 싱글은 좋은 인연 기대하라.

50년생 동행자 배려에 신경 써라. **62년생** 날카로운 통찰력이 필요하다. **74년생** 공직자는 검은 돈 유혹 단호히 뿌리쳐라. **86년생** 귀인을 만나 잠자던 꿈을 깨운다.

51년생 내일 위해선 빈손 감수해야 한다. **63년생** 중요한 일은 직접 지시하라. **75년생** 조직서 무게 추 역할 잘 해야 한다. **87년생** 손 들어주는 상사가 있어 든든~.

52년생 힘이 빠졌으면 물러나라. **64년생** 대답할 가치 없는 말에 대응하면 손해 본다. **76년생** 이미지 개선에 신경써라. **88년생** 고민은 한순간에 풀린다.

53년생 말을 아껴야 체통 제대로 선다. **65년생** 부부가 행복 프로젝트 만들어라. **77년생** 기다리던 소식 드디어 듣는다. **89년생** 논란이 있는 일엔 관심두지 말라.

42년생 가는 사람은 막지 말라. **54년생** 꿈을 향해 첫걸음 내딛는 청년 격이다. **66년생** 친구가 어려울 땐 기꺼이 동행하라. **78년생** 상황이 불리하면 꼬리 내리는 게 이롭다.

43년생 직언에 귀 기울여야 손해 없다. **55년생** 무관한 일엔 끼어들지 말라. **67년생** 욕심 부리면 명예에 흠집만 생긴다. **79년생** 괄목할 성과에 박수가 쏟아지는구나.

44년생 말이 달콤한 사람 주의할 것. **56년생** 변화의 중심에서 큰 역할 한다. **68년생** 시키지도 않는 일을 하는 자녀가 때론 흐뭇~. **80년생** 작은 실수는 약이 된다.

45년생 옳고 그른 것 너무 따지면 피곤하다. **57년생** 아랫사람 의견에 귀 기울여라. **69년생** 눈여겨봐야 할 사람이 생긴다. **81년생** 성공하려면 승부욕과 호기심은 필수~.

46년생 아픔 딛고 희망 말하는구나. **58년생** 자녀가 모처럼 기쁜 소식 전한다. **70년생** 변수가 있더라도 계획대로 할 것. **82년생** 장난기가 많으면 오해받기 쉽다.

47년생 고집부리면 가족도 등 돌린다. **59년생** 생각도 못한 공돈이 생겨 야호~. **71년생** 술좌석서 농담 잘 못하면 발목 잡힌다. **83년생** 길이 열렸으니 꿈을 펼쳐라.

한국 축구 대표팀 선수들이 기념촬영을 위해 대기하던 중 일부 팬이 대표팀의 부진을 질타하며 호박엿 맛 사탕을 던지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명보 감독 "국민께 죄송"

부진 사과 거취 결정은 유보…귀국 현장 호박엿 세례

홍명보 축구 대표팀 감독이 브라질 월드컵에서의 부진한 성적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그러나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홍 감독은 지난달 3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월드컵 기간 국민 여러분께서 성원을 보내주셨는데 보답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제가 부족해 성적을 내지 못했지만 우리 선수들에게는 아직 미래가 있는 만큼 남는 것이 있는 대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질 월드컵에서 사상 첫 원정 8강을 노렸지만 조별리그에서 1무 2패로 탈락한 한국 대표팀의 이날 입국장에는 취재진과 축구 관계자, 출입국 여행객과 대표팀을 마중나온 팬 등 약 200여 명이 자리했다.

일부 팬은 대표팀의 부진을 질타하며 호박엿 맛 사탕을 던지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귀국 현장에선 무엇보다 홍명보 감독의 거취가 최대 관심사였다. 2015 아시안컵까지 임기를 보장받았지만, 월드컵 부진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여론이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홍명보 감독은 일단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다.

사퇴 의사를 묻는 질문이 쏟아지자 홍명보 감독은 "장시간 비행으로 정신이 없다"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다.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2015년 1월 아시안컵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다. 이번 월드컵 결과를 바탕으로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반성하고 잘된 부분은 살릴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이날 함께 귀국한 선수들은 어수선한 분위기에 엿 세례까지 받으면서 대체로 침울한 표정을 지어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또 '한국 축구는 죽었다'는 플래카드까지 내걸려 현장의 분위기는 더욱 험악했다.

주장 구자철은 "월드컵이라는 큰 무대에 대한 중압감이 컸고, 책임감을 느꼈지만 목표를 못 이뤄 너무 아쉽다"고 귀국 소감을 전했다. 대표팀은 별다른 행사 없이 곧바로 해산했으며 선수들은 당분간 휴식을 취하며 후반기 일정을 준비한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오승환 2사 징크스와 첫 위기

이선호의 베이스볼 카페

한신 소방수로 듬직한 활약을 했던 오승환이 흔들리고 있다. 결정적인 승부처에서 등장하는만큼 소방수가 100%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최근 결정적 실점과 블론세이브를 하고 있다. 급기야 보직전환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6월 28일 오승환은 주니치와의 홈 경기에서 1-1로 팽팽한 연장 10회초 등판했으나 솔로홈런을 맞았다. 153km짜리 직구가 바깥쪽 높게 들어간 실투였다. 한신이 동점을 뽑아 2-2 무승부로 끝났다. 그러나 이기지 못한데다 소방수가 또 무너졌다는 점에서 팀 분위기가 어수선했다.

오승환은 최근 7경기 가운데 네 번이나 실점했다. 특히 2사까지 잘 막고 실점하는 일이 잦다. 지난 6월 3일 라쿠텐전에서는 9회 2사 1,2루에서 끝내기 3루타를 맞았고 , 6월 17일 니혼햄전 9회 2사1,2루에서 역전 2루타를 허용했다. 세이브 15개로 2개 차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방어율이 2.57로 높아졌다.

닛칸스포츠는 이날 경기를 보도하면서 '배치전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보직 박탈의 가능성을 거론했다. 나카니시 투수코치는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좀 해줘야 하는데"라며 아쉬움도 동시에 밝혔다. 후자가 요즘 팀에서 오승환을 생각하는 진심이다.

오승환의 부진과 팀 부진이 겹치고 있다. 오승환은 교류전에서 3개의 블론세이브를 했는데 한신은 9승15패를 했고 승률은 4할대로 내려 앉았다. A클래스(3위 이내) 가능성도 줄어들고 있다. 숙적 요미우리를 잡겠다는 야심만만한 목표도 가물가물하다.

현재 한신 마운드에서 오승환의 구위를 뛰어넘는 불펜투수는 없다. 삼진을 뺏어내는 능력은 탁월하지만 결정적인 실투, 즉 제구가 문제다. 언론에서 배치전환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라면 자존심이 걸린 문제다. 오승환에게 첫 번째 위기가 왔다. /OSEN 야구전문기자

멕시코 지고 오초아 뜨고

'선방쇼' 팀 패배에도 상종가

멕시코의 기예르모 오초아(사진)가 팀 패배에도 자신의 몸값을 상종가로 끌어올렸다.

지난달 30일 브라질 포르탈레자의 카스텔랑 주경기장에서 열린 네덜란드와의 16강전에서 멕시코는 1-2 역전패를 당하며 8강 진출에 실패했지만 수문장 오초아는 패배팀 선수로는 이례적으로 맨 오브 더 매치(최우수 선수)에 선정됐다.

조별리그에서 32개국 중 가장 많은 10골을 터뜨린 네덜란드는 이날 경기에서도 무차별 공격을 퍼부었지만 후반 43분까지 오초아의 단단한 잠금장치를 풀지 못하고 패배 직전까지 몰렸다.

그러나 오초아는 후반 43분 베슬러이 스네이더르의 골을 막아내지 못하며 1-1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 후반 추가시간에는 클라스 얀 휜텔라르의 페널티킥을 막지 못해 8강 문턱에서 고개를 돌려야 했다.

오초아는 비록 16강전으로 이번 대회를 마무리 했지만 본격적으로 빅리그의 러브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조별리그에서 32개국 키퍼 중 가장 적은 1실점만 했고, 특히 브라질과의 경기에서는 네이마르의 슈팅을 여러 차례 막아내는 등 무실점으로 경기를 끝냈다.

3년 전 고기에 포함된 금지약물을 섭취해 도핑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빅리그에 진출하지 못했던 안타까운 사연까지 알려지며 화제를 모았다. /유순호기자 suno@

코스타리카의 골키퍼 케일러 나바스가 그리스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다. /AP 연합뉴스

코스타리카 첫 8강행

승부차기 접전 그리스 꺾어

코스타리카가 16강에서 그리스를 물리치고 이번 대회 이변의 중심에 섰다.

코스타리카는 지난달 30일 브라질 헤시피의 페르남부쿠 경기장에서 열린 그리스와의 16강전에서 승부차기 접전 끝에 5-3으로 승리했다. 코스타리카는 후반 7분 터진 루이스의 골로 1-0 승리를 눈앞에 뒀지만 후반 추가 시간 소크라티스 파파스타토풀로스에게 동점골을 허용했다.

후반 21분 오스카르 두아르테가 경고누적으로 퇴장당하면서 수적 열세까지 입은 코스타리카는 케일러 나바스의 선방을 앞세워 경기를 승부차기까지 끌고갔다.

두 팀은 세 번째 키커까지 모두 골을 성공시켰지만 그리스의 네 번째 키커 테오파니스 게카스가 찬 공이 나바스의 손에 걸리면서 승부는 코스타리카 쪽으로 기울었다. 결국 코스타리카의 마지막 키커 마이클 우마냐가 침착하게 골을 성공시키며 8강행 티켓은 코스타리카에게 돌아갔다.

나바스는 이번 대회에서 주목받는 중남미 골키퍼들의 슈퍼세이브 행렬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그리스의 베테랑 골잡이 게카스는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씁쓸하게 귀국길에 오르게 됐다.

조별리그에서 우루과이, 잉글랜드, 이탈리아와 함께 '죽음의 조'로 묶이고도 당당히 1위로 16강에 오른 코스타리카는 사상 최초로 월드컵 8강에 진출하며 이변을 이어가고 있다. /유순호기자